**금주의 기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남은 2019년 잘 마무리하도록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19년 11월 23일 (토) 제 1756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발행인 칼럼 ●**

## 오감(五感)으로 감사(感謝)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우리에겐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그리고 촉각이다. 이 다섯 가지가 가장 잘 쓰여야할 영역은 어디일까? 나 홀로 즐기는 데? 남을 괴롭히는데? 죄를 짓는 데?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오감은 감사의 영역에 아름답게 쓰여야 한다.

감사의 시각(視覺)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음을 알 수 있다. 창세기 3장에 하와는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들은 광야에 "없는 것"만 보았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윗은 고적(孤寂)한 들녘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했다. 전자(前者)는 불평의 눈을, 후자(後者)는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살았다.

지휘자 윤학원 장로님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 노래하는 연주자 같다.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 한 박자, 한 박자 최선을 다해 연주하다보니 어느 덧 내 삶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들어 있다." 그의 일생은 저명한 지휘자의 삶이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악보(樂譜)조차 자기가 지휘자라는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 자기 인생의 악보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것으로 보며 감사드렸다. 우리의 시각은 감사의 시각이어야 한다.

감사의 청각(聽覺)

중학교 때 툭하면 싸움을 잘하던 급우(級友)가 있었다. 몇 차례 크게 싸우고는 다른 데로 전학(轉學) 갔다. 그 당시 그 친구를 알고 있었으나 그 친구의 싸움을 이해하게 된 것은 그 친구가 떠난 지 아주 훗날이었다. 지금까지 그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 친구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 컸고 싸움의 발단은 항상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었다. 친구들의 평범한 말을 자기를 조롱하는 말로 여겼던 것이다. 열리지 않은 청각 속에 오해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다. 왜 그 친구뿐이랴. 우리 모두는 심각한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 많은 문제가 청각에서 빚어진다.

예수님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질책하셨다. 눈은 나로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귀는 밖의 것을 내 안으로 모은다. 그리고 그 모아진 것으로 나를 빚어 간다. 태교(胎教)가 그런 이론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겠는가. 밖에 떠도는 두려움의 소리, 염려의 소리를 귀를 통해 잔뜩 모으는 자가 많다. 그런 자가 어떤 삶을 살지는 너무 자명(自明) 하다. 진짜 소리가 있다. 하늘 소리가 있다. 그 소리 듣는 데는 둔감(鈍感)하고 가짜 소리, 땅의 소리에만 열려 있다면 어찌 감사가 있겠는가. 우리의 청각은 하늘 소리에 "예바다" 되어야 한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청각은 감사의 청각이어야 한다.

감사의 미각(味覺)

요즘 유행하는 방송이 있다면 먹방 방송이다. 유명한 음식 평론가가 어떤 요리사(料理師)가 만든 음식을 먹고 그를 향해 맛이 어떻다고 평가하는 장면을 침을 꼴깍이며 본다. 그러나 모든 음식은 주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그 식재료(食材料)를 사고파는 시장(市場)의 역할이 만만치 않게 있다. 또 농부와 어부 등의 수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먹방이 차려지겠는가. 근본적으로 해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작은 콩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는가. 간사해진 미각이 감사를 잃은 지 오래이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쳐 먹는 것과 같다." 그러니 매 식탁(食卓) 앞에서 어렸을 적에 불렀던 노래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의 양식에도 늘 감사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최고의 식탁인 성찬(聖餐) 앞에서 극진(極盡)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을 보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다(We are what we eat)"라고 일부(一部) 해석해도 무방(無妨)하리라. 오~ 놀라운 영(靈)의 양식이여! 일상의 양식이든 영생의 양식이든 먹음과 감사는 분리할 수 없다. 우리의 미각은 감사의 미각이어야 한다.

감사의 후각(嗅覺)

독감 접종을 했음에도 코가 꽉 막히고 목이 따갑고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기침이 이 글을 쓰는데도 계속된다. 이번에 후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소 문제가 있어 빵이 타는 냄새에 제대로 반응 못하다가 밖에 다녀 온 아내 덕에 하나 남은 베이글을 극적으로 살려(?) 그을음을 제거하고 먹을 수 있었다. 함께 마셨던 커피향(香)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음을 물론이다. 후각은 너무 중요하다. 그 실체를 직접 대하기 전에 냄새가 주는 고소함과 역겨움을 맡을 수 없다면 삶의 즐거움은 반감될 것이요 위험은 급증할 것이다. 감출 없는 것이 세 개 있다. 기침과 냄새와 사랑이다. 하나님은 향취(香臭)를 좋아하신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시길 원하신다. 삶과 냄새를 떼어 놓을 수 없듯이 신앙과 향기는 함께 간다. 우리의 후각은 감사의 후각이어야 한다.

감사의 촉각(觸覺)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촉각이었다. 그 촉각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그의 촉각은 세상을 만나는 길이었다. 촉각으로 세상을 배우고 그 촉각으로 무기력했던 사람들을 깨우쳤다. 그녀의 촉각은 감사를 표현하는데 다른 이들의 입술보다 더 뜨거웠다. 얼마 전에 쓰러져 아직 병원에 누워있는 여(女)집사님이 계시다. 40세가 안 되셨는데 병원에서는 거의 포기하는 듯한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그러한 그가 요즈음 밖에서 들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손가락으로 반응하고 있다. 때론 눈물도 흘린다. 아주 자그마한 촉각으로 벅찬 감사를 표현한다. 남편과 세 자녀, 그리고 모든 가족의 감격과 교회의 기쁨이 어떤 한지 이루 표현할 수 없다. 우리의 촉각은 감사의 촉각이어야 한다.

추수감사절이다. 지난 한해도 돌아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측량 못할 은혜이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데 오감으로 다 표현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도 오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나의 오감이 존재하는 이유를 확실히 드러내자.

**감 사 시**

## 다시 하늘이 열리다

**이병준 목사**
(뉴저지 한길교회)


**잎사귀가 떨어지는 아픔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결실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람이 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의미를 무시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감사의 계절을 통하여**
**무디어진 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두드리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 가 살펴보아라.**
**씨를 뿌리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아도....**

**주님,**
**나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배은망덕함과 교만함을 잠재워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결실의 열매들이**
**창조의 신비를 노래할 때에**
**나는 탐심과 자만으로**
**나의 영혼을 병들게 했나이다.**
**모든 것이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당신께로 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창고 늘리기에만 급급하다**
**내 영혼이 파리해졌나이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움켜쥐지 못해 한숨짓는**
**나의 불쌍한 영혼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감사하지 않음으로**
**어둠의 미로를 헤매고 있는 나를**
**당신은 공중의 새와 들꽃을 보라 하시며**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십니다.**

**주님,**
**이 감사의 계절에**
**담 위에 매달린 감 열매를 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피곤하게 하루를 지냈지만**
**편안히 잠자리에 누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또한 자녀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 ABHE 정회원 | TRACS 정회원

기 독교 상담학 학사 및 석사 과정 TRACS 인준

| | |
|---|---|
| 학위과정 | 다문화 철학박사(PhD in ICS)<br>선교학 박사 (D.Miss)<br>목회학 석사 (M.Div)<br>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br>선교학 석사 (MA ICS)<br>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br>신학사 (BA)<br>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
| 특 혜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br>저렴한 교육비<br>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br>English Track<br>LA Extension<br>유학생 I-20 발급<br>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br>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br>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br>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

## 이벤트1. 11월 Early Bird 장학금

특별히 11월 한달동안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와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3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 이벤트. 추수감사오픈하우스

LA 확장강의실 (11월 25일, 월, 오후 7시)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213-529-4147)
플러튼 본교 채플실 (11월 26일, 화, 오후 7시)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 시 론

#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예물!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 총리, DJ 아민 반 뷰렌, EDM계 슈퍼스타 하드 웰, 네덜란드 윈드서핑 금메달 리스트 도리안 반 리셀버지. 네덜란드 유명인들이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SNS에 그 모습을 올렸습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 동참하며 색색 매니큐어 칠하는 것에 이들의 표정은 너무나 밝고 행복했습니다. 형형색색 칠해진 그들의 손톱은 이 세상에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6세 소년 '테인 콜스테렌'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일년도 남지 않은 시한부 생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통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다부진 어른이라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테인 콜스테렌'은 달랐습니다. '테인'은 자신의 병과 아픔을 생각했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처럼 병으로 아파하는 또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니큐어를 발라주는 대가로 1회당 1유로(1,300원)를 기부 받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네덜란드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동참하여 손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모금액은 250만유로(약32억원). 이 금액은 전액 뇌졸중과 폐렴 아동 치료비로 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테인'은 2017년 7월 7일, 7살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인터넷 퍼온 글).

아직 어린 6세의 어린 소년이 뇌종양 중에서도 자신과 같은 병으로 아픈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것, 캠페인을 벌려 희망을 나누었다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어린 소년의 사랑과 희망의 캠페인에 함께 동참한 네덜란드 사회 등 모두에 깊은 마음 감동과 울림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람은 자신의 '내일'을 모르며,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테인 콜스테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7년의 짧은 생명을 그 사랑으로 살다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갔습니다. 이 7살난 작은 소년의 사랑은 네덜란드의 온 국민에게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고, 사람은 무엇을 모르고 살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깨움은 이들을 "매니큐어 캠페인'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7년의 짧은 삶을 살다간 소년이 우리들에게 던져준 질문 앞에, 너무나 분주히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이제 잠시 멈춰서서(STOP) 묵상하면서(Contemplatio) 잊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 그리고 그 사랑의 감사와 나눔에 대해 마음의 깊은 성찰(Reflection)로 일깨움으로 서게 됩니다. 이 작은 소년이 세상에 남긴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을 기억하면서.

교회력으로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12월에는 대강절을 지나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1년의 마무리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앞으로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사 모든 일상과 그리고 사건들과 사고들까지도 서로 작용시키셔서 가장 멋지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하는 '에벤에셀의 감사와 여호와 이레의 선, 감사'를, 이웃들도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메인 메시지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과 세상을 구원하신 역사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라고 하십니다. 성탄절의 메인 메시지도 역시 "사랑과 나눔"입니다. 이렇게 매해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는 일"로 한해를 마무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나눔을 통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동참하는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 삶이 추수감사절의 예물이요 성탄절의 예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인들과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누며 살아도 나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한 개의 촛불로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의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사랑의 나눔의 결국'은 '채워짐'입니다. 더 나눠도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채워짐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소서!

# 하나님 보살핌 속에 살아온 은혜 되짚는다!

## 2019 추수감사주일 맞아 그 유래와 의미 되살리는 감사절기 제안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교회들은 매년 추수감사절 시기가 되면 각종 행사, 예배, 새벽기도회 등을 통해 감사의 의미를 되새긴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11월 28일이다. 이에 앞서 각 교회들은 24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현재 감사 주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각종 형태를 통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건 좋지만 절기처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11월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달이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감사와 나눔,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간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갖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륙을 건넌 청교도들에게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청교도들은 추수를 마친 후 이웃 인디언들을 초청해 함께 기쁨을 나눴다고 한다. 이러한 청교도들의 축제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됐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더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들의 절기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곡식과 결실만을 드리는 감사절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몸짓을 하다가 죽기까지 한 신앙을 드리는 절기다. 그들이 드린 감사의 예물은 1년 후에 맺은 농사의 열매만이 아니다. 영국을 떠난 120명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다. 그리고 1년 동안 죽은 40명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

목숨을 걸고 드린 신앙,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드린 예물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추수감사절에 드릴 예물이 농사의 결실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수할 것도 없고 주님께 드릴 것도 없다. 추수감사절에 드릴 예물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한 우리의 몸짓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은 1년간 농사지은 그 대가를 하나님에게 바치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1년간 자신이 살아온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온 은혜를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의 표현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로 정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어떻게 되살려야 할까?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만 되면 소수의 인도자들에 의해 갖가지 행사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영적 감흥이 없거나 성도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목회자는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과 기쁨을 교회와 가정에 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추수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절기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가기 전 다양한 씨앗을 준비해 가져갔다. 그러나 새로운 땅에서 얻은 결실은 그들만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인디언들이 옥수수 씨앗을 나눠주고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청교도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 백여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새 땅에 정착해서 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만이 아니었다. 신대륙에 먼저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과의 관계와 호의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그러니 추수감사는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다. 우리가 얻은 결실은 우리만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웃의 도움을 통해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다. 그러니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웃과 경쟁하고, 남위에 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이 현대사회에서 추수감사절은 반대의 길을 제시한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 정복이 아니라 평화,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며,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뿐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는 청교도들보다 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은 이웃에게 받은 도움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보은하는 절기다.

감사절은 마음껏 하나님께 사람에게 감사하는 절기다. 감사를 배워야만 한다. 감사에 민감하고 감사가 풍성할 때 행복도 증가된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선포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난도 실패도 다 감사로 받으면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감사를 배워가는 사람은 갈수록 모든 것이 감사의 상황으로 바뀌질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진 것이다. 이 추수감사절에 더욱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 익숙해져서 우리 모두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한다!

〈편집부〉

[알림] 감사절특집 발행후 11월 30일자는 정기휴간 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 성 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213)674-7982(대표) (323)665-0009(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2019 신앙서적 독후감 공모 수상자 명단**

우수상
이다복(버지니아 휄로십교회) <나를 돌보는 시간>
김화성(영국 에어처치) <나를 돌보는 시간>
김장혁 (LA 엘로힘교회) <내게 힘을 주는 교회>

장려상
한연선(산호세 임마누엘교회) <포기하지마>
김재윤(카나다) <포기하지마>
정희수(LA 인랜드교회) <나를 돌보는 시간>

* <>은 읽은 책

**2019년 정기총회 및 독후감 시상식**

2019년 세계기독언론협회 정기총회 및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시상식이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독일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카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카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독후감공모 후원 기독교서점협회 (회장 전인철 목사)

# 감사절 설교

우리는 해마다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이 없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사꾼이든,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사람이든 인간의 모든 삶은 심고 가꾸고 거두는 농사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자식을 키우고 뒷바라지 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농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꾸듯이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 오곡백과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하기조차 싫은 아픔과 고통과 힘든 삶의 여정을 지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든지 잃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감사할 일이 많든지 적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가 농사하여 추수를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얻은 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 감사하며 살다가 축복 받은 사람들과 또 하나는 불평 불만하다가 실패한 영혼들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고도 감사하며 입술을 조심했던 욥이나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는 바울이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스데반을 본받아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중에는 잘못된 감사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며 남을 정죄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잘못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데 감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체면상 감사한 척 하는 세속적이고 눈가림만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주님이 바라시는 참 감사가 아닙니다. 참 감사는 마음속 깊은데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를 말합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살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 불행을 이기는 능력, 좌절과 절망을 이기는 능력, 마음에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좋은 일은 더 좋고 더욱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본문 시편 50편 23절 전반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시편 69:30-31절에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황소를 드리는 자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므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 2.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쌓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그 역경과 죽음의 검은 폭풍 앞에서 오직 감사와 찬송을 부르니까 적군들 사이에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과 창으로 찌르고 물고 찢음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군대는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감사 찬송만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일수록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환난이 변하여 구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 3. 감사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평은 미움과 분노와 불안과 절망과 탄식을 가져오지만 감사는 이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불안과 절망과 탄식을 심어 인생을 파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사탄 마귀가 갖다 준 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술로 약으로 치료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사탄 마귀는 감사 찬송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하므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찾아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울왕은 그 악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와서 그를 치료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왕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찬양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원통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 4. 감사는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이 되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은 불행을 가져다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마음은 밝고 맑고 환한 태양이 떠오르고 행복해지지만 불평과 원망은 언제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몇 년 전에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자료에 보면 잘사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글라데시 같은 가장 어렵게 사는 나라의 백성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과거보다 현재가 너무나 살기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전하고 삶이 부유해질수록 현재의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낮고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은 외적인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했고,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깊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므로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결론

감사는 좋은 일은 더 좋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할 것을 찾지 말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아 행복이 넘치는 삶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마음을 지키라

비행기는 좌석의 등급에 따라 공항 수속과정부터 비행기 타는 순서, 좌석의 넓이, 기내 음식, 짐 찾기 등등 서비스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좌석의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승객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다는 것과 탑승한 비행기에 발생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좌석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승객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면 목사인 저도 마음이 은근히 불안해집니다. 심한 경우 비행기가 몇 미터 아래로 툭 떨어지기라도 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때는 일등석이나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비행기가 추락하면 일반석만 추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일등석 승객이 흔들림이 없는 기체 안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극도로 불안해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의 평안이 깨져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가 있습니다. 편안한 곳에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을 경계해야 할까요?

손에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을 잃으면 무감각해집니다. 냉동고의 얼은 밥은 데우지 않고서는 그냥 먹지 못합니다. 단단한 돌은 물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길 위에서 일부러 넘어지려고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굳은 마음도 위험합니다.

또한 "손은 부러져도 일할 수 있지만 마음이 부러지면 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러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강퍅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난기류로 인해 심하게 흔들리는 마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기도를 통해 경험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경 통독을 합시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분노, 욕심, 질투, 교만 등등 온갖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는 마귀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중심, 세상중심'으로 살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마음이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살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최악의 영적 난기류를 만나도 절대 추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품고 섬기겠다"

## 강단 세우기 주력...52년 역사 저력 성숙케 할 사명
## 불필요한 요소 최소화하며 예전중시 예배모습 감사

나성제일교회는 새 담임목사로 차성구 목사를 청빙 완료했다. 지난 11월 3일 첫 설교를 시작하고 부임 3주차를 맞이한 차성구 목사는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LA라는 대도시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나성제일교회가 5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군요. 52년이라는 세월동안 크고 작은 일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중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시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에 부임해서 와서 보니 또 다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려 사역이 중단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성제일교회는 어려움을 단지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이러한 상황을 잘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52년이라는 세월 속에 생성된 영적인 저력이라 생각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교회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라 보여지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동부 메릴랜드에 위치한 휄로십교회 선임목사로 사역 중이었던 차 목사는 담임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던 중 7월 중순경 청빙광고를 보고 본 교회에 지원하게 됐고, 나성제일교회는 청빙절차를 거쳐 지난 9월 29일 공동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됐다.

총신대학교에서 신학부와 목회학석사과정을 마치고 지난 2001년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리버티대학으로 미국유학길에 오른 차성구 목사는 실천신학으로 Th.M과정을 밟으며 파트타임 사역을 하면서 이민목회의 비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아카데믹한 길로 가며 Ph.D과정을 공부하느냐 목회사역의 길로 가느냐를 놓고 기도할 때였어요. 당시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저마다 아메리칸드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 삶의 영역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민자들의 삶을 보니 신자들은 집-교회-직장이라는 삼각구도 속에 살고 있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이러한 분들을 보면서 이민목회의 길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민목회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좀처럼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회상한 차 목사는 미시건 칼빈신학교에서 역사신학으로 Th.M 과정을 공부 중에 있었는데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부름을 받게 됐고 그것이 이민목회의 첫 번째 시작이었다고 언급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남가주사랑의교회 사역을 필두로 2008년 메릴랜드에 있는 워싱톤제일장로교회 담임목회, 그리고 2010년 남가주 부에나팍에 기쁨의교회를 개척해 2016년까지 담임사역을 한 후 메릴랜드에 위치한 휄로십교회에서 선임목사로 목회총괄을 담당했다"며 "공교롭게 목회사역은 남가주와 메릴랜드 두 곳에서 했었지만 전통적인 교회와 현대적인 교회를 두루 섭렵하게 됐고 그것이 이민목회사역을 하는데 있어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성제일교회에 부임하면서 담임사역으로 기도해온 것이 이루어진 느낌이라고.

"요즘 많은 교회들이 현대식 예배를 선호합니다. 저 역시 이런저런 순서들이 많은 건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현대식 예배를 생각하면 예전에 대해 소홀한 듯한 느낌도 받게 되거든요. 나성제일교회는 불필요한 요소들은 최소화하면서 예전을 중시한 예배의 모습이라 생각돼 반가웠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차 목사는 담임목사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강단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목사가 강단 세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성장을 맛보게 될 것이며 부흥으로 연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는 우선 본교회가 진통을 겪었던 만큼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품고 섬긴다면, 그리고 기도로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교회 회복은 물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 말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만났을 때 비록 어제까지 배고팠을지라도 오늘 좋은 꼴과 물을 먹고 마시면 회복이 되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게 되니까요."

몬트레이팍에 거주하고 있는 차 목사는 LA가 젊어지고 있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성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또 교회들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각성이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어떻게 사역을 해나갈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으로 부인 차광숙 사모와 혜원, 주원, 영원 세 딸이 있다.

〈박준호 기자〉

# 세상틈새로 새롭게 개척되는 미니교회 있다!

## CT, 교회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 겨냥하는 마이크로교회운동 소개

주일 오전 7시 30분. 슐라이트 복싱 앤 피트니스(Schlitte Boxing & Fitness)에 가보면 십여 명의 남녀가 펀치 백을 두드리거나,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벤치프레스를 하고서는 서로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크로스핏(CrossFit, 피트니스운동법의 하나이자 그 브랜드)이 아니라, 워리어교회(Warrior Church)의 주일 아침 예배 모습이다.

이 체육관 한 쪽에는 우유 박스를 쌓아 임시로 만든 강대상이 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워리어교회 설립자 션 스틸은 15분 동안 기도를 하고 성서일과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눈다.

2017년에 설립한 워리어교회는 퇴역 군인을 비롯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현재 4곳이 있고, 곧 6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워리어교회를 비롯해, 텍사스 주 스프링과 인근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성이시도르성공회교회(St. Isidore Episcopal Church)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회 건물이나 예전 대신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작지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교회개척운동, 즉 선교적공동체 또는 마이크로교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Carving Out a Niche for Micro-Congregations: A new wave of designer ministries isn't about attracting people to "big church").

성 이시도르 네트워크에는 가정교회 몇 곳과 타코벨(Taco Bell)에서 기도모임을 갖는 남성들의 교회인 타코교회, 그리고 "대화와 예술적 표현"에 전념하는 컬러링교회(Coloring Church)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예배에 참석하려고 성이시도르교회의 예배당을 찾아갔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 교회는 정해진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는다. 성이시도르의 웹사이트에는 그래서 "벽이 없는 교회"라고 적혀 있다.

성이시도르의 워리어교회는 성공회 공동기도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의 예배의식은 전통적인 성공회 예배의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 교회의 예배의식에는 서킷트레이닝, 역도, 요가가 포함돼 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 활동을 통해 영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운동들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틈새 공동체들이 다른 교단들에도 있다. 예컨대, 감리교 단체들에서 태동한 치매 환자를 위한 교회들도 여럿 있고, 남침례교단에는 카우보이교회와 해병대원들을 위해 디자인된 교회들도 있다.

이러한 공동체들을 가리키는 명칭—교회의 새로운 표현양식으로 사명공동체(missional communities), 마이크로-교회(micro-churches)—은 여럿이지만, 이 공동체들에는 유사점이 많다. 이들을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강줄기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스스로를 매우 특수한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역 교회로 여기는 공동체도 있고, 스스로를 교회의 여러 표현양식들 가운데 하나로, 곧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편교회(universal church)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동체도 있다.

성이시도르 네트워크처럼 예배를 같이 하는 하나의 교회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이름 아래 자원과 명칭과 비전과 리더십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성숙한 지역 교회들(congregational churches)이 개척한 공동체도 있다. 개척하는 교회(planting church)가 개척되는 공동체(planted community)에 리더십과 자원을 공급하지만, 이 개척되는 공동체를 하나의 독자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들의 구조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들의 가치는 대체로 일치한다. 특정 대상에 집중하는 선교, 평신도 리더십에 대한 강조, 저비용 고효율의 재생산성이 그런 가치들이다.

이러한 공동체들의 지도자들은 점점 세속화돼가고 있는 오늘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만들려는흡인모델(attractional model)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에 이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살고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더 작고, 훨씬 더 지역에 밀착된 공동체를 시작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

리더십 네트워크(Leadership Network)의 리더십 전문가 레기 맥길은 환경에 최적화된 이러한 공동체들이 내딛고 있는 "미래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이 서구교회의 "단일표현양식"을 흔들어 놓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교회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을 대폭 확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맥길은 예견했다. "우리는 운동으로서의 교회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양식들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뒷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남침례회(SBC) 북미선교부(NAMB)의 대표 케빈 이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선교부의 교회개척 모델을 바꿔야 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SBC는 미국 북동부에 침례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별 성과가 없습니다."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NAMB는 교회개척자들에게 한 가지 개척 모델만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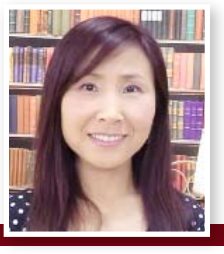
이제 이 교단의 교회개척자들은 NAMB의 샌드네트워크(Send Network)와 협력해 특정 대학캠퍼스나 특정 인종을 겨냥하고 있다. "과거에 SBC가 제시한 교회개척 가이드라인은 너무 편협했습니다." 이젤은 "이제 우리는 기꺼이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초교파 운동의 하나가 '새로운 양식 공동체(Fresh Expressions, FXs)'이다. 이것은 포스트-기독교 문화에 특화한 새로운 교회 양식을 개발하는 사역에 역점을 두고 있는 운동이다. FXs 웹사이트에 따르면(freshexpressionsus.org), "교회의 새로운 표현 영식은 저마다 독특하며, 각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디자인됐다"고 명시돼 있다.

FXs는 2004년에 영국 성공회와 영국 감리교회에서 처음 출발해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로 확산했다. FXs가 개발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교회 아웃리치 그룹이나 봉사 활동과는 다르다. 이 공동체들은 교인들에게 주일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들은 기존의 주일예배에 참석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교회 예배의 대안을 제공하려는 목표로 설계된다.

FXs US의 디렉터 크리스 베커트는 "탈-기독교의 현실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는 북미교회"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미교회들이 전략적이고, 상황에 적합한 교회개척에 투자한다면, 이제라도 "미래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다. "교회가 앞으로 10년을 더 머뭇거린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7세 아들을 "여자"로 성전환하려는 엄마 손 들어준 법정케이스 오히려 미성년 성전환약 금지 반작용 운동으로!

7세밖에 안 된 쌍둥이 아들 중 한명인 James Younger를 여자로 성전환 시술 시키려는 엄마와 아들을 계속 남자로 키우려는 아빠의 법정싸움 케이스가 엄마 쪽의 승리로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런 황당한 일을 자신들의 주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전환약-호르몬주사"을 금지하기로 여러 주에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악의 세력은 상상 밖이라서 이렇게라도 다른 주들이 미리 악의 세력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다시 텍사스 법정의 황당한 결정으로 돌아가, 텍사스주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Matt Krause(R-93)는 이번에 결정에 큰 실망을 했다면서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남자에서 여자가 되거나 여자에서 남자가 되기 위한 "트랜스젠더-성전환" 촉진제 "사춘기 차단제(Puberty Blocker)"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곧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의 공화당 하원의원인 Ginny Ehrhart(R-36)도 역시 의료 제공자가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Puberty Blocker 같은 성호르몬 처방을 주는 모든 의료제공자들을 중범죄로 만드는 법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Ginny 의원은 말하길,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문신을 하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판단을 내려서 법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평생을 좌우할 성전환 수술을 정부가 오히려 지지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판결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선거 때 지니 에르하트 하원의원은 2살 때 분홍색 잠옷과 컵케이크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아들을 "트랜스젠더" 딸로 키우고 있는 같은 디스트릭트 민주당대표로 나왔던 Jen Slipakoff를 물리치고 지금 조주아주 district 36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공화당 하원의원인 Savannah Maddox(R-61) 역시 같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매덕스는 "어린 아이들의 뇌가 '성별'에 대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젠더 혼돈(Gender Dysphoria)이 있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그 혼돈을 부추기는 것은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DC는 최소 음주연령을 21세로 확립하기 위한 기준을 뇌 발달의 변화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자료들을 인용하는데, 신경과학자에 따르면 두뇌는 25세쯤에 개발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전

텍사스 법정에서 7세 소년의 성전환(여자) 시술결정을 유예 시킴

두엽피질 즉,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위험분석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은 18세에서 20세가 되어서만이 완전히 발달할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트렌스젠더(성전환) 연구의 전문가인 Stephen Levine 박사는 이번 7살난 James Younger 재판장에서 증언하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린 청소년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트렌스젠더가 되려는 시도를 빨리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트렌스젠더가 되려는 시도는 주로, 그들이 직면한 심리적, 사회적으로 느끼는 압력으로 인한 혼돈 때문임이 계속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Levine(레바인) 박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전환 연구를 하고 있는 의료계에서는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트렌스젠더인 성전환자들의 숫자증가는 사회가 받을 영향을 볼 때 위험한 증상이라고 의료계의 우려도 증언했습니다. 레바인 박사는 자신들의 조사를 알려주며 성 정체성 문제를 겪고 있는 어린이의 85% 이상이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나 미디어, 사회적으로 격려 받지 않으면 잠시 혼돈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본래 자신이 태어났던 출생 성별로 돌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친동성애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에서 30년 이상 실시되고 인용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출생 성별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성전환 수술을 시도한 트랜스젠더들의 자살률이 표준 인구의 자살율보다 19배씩이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의 Pediatricians' Committee on Adolescent Sexuality 이사인 Michelle Cretella 박사는 어린 아이들에게 호르몬 약물이나 성전환 수술절차는 어린이들에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육신적 피해를 준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같은 부서의 공동 의장인 Andre Van Mol 박사는 젠더 혼돈(gender dysphoria)은 "정신 건강 진단"을 받아야하고 "트랜스젠더 사상"는 "과장된 이데올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젠더혼돈에 있는 아이들의 생각을 수술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실험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에 아이들을 더 이상 성적인 실험물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Andre Van Mol박사는 말했습니다.

미국 FDA문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호르몬 차단제로 사용되는 성전환 약(Lupron)의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33,478명이 있었고 19,054명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고 6,056명은 사망까지 했습니다.

동성애 라이프스타일과 성전환(트렌

스젠더) 시술 등은 어린 십대들에게 수많은 성병과 아직까지도 절대로 완전히 고칠 수 없다는 에이즈라는 불치병뿐 아니라 정신, 감정까지 약하게 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거듭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생활을 공립학교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에게 계속 주입시키는 법안들을 민주당에서는 왜 계속 만들어 통과시키고 모든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감수하도록 집행하는 것일까요?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의 성생활을 성애화 시키는 법안들이 수십 개씩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진정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Action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11월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까지 건너와 오늘의 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는데 청교도들의 신학사상적 뿌리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그들이 미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미타에서 권영화 장로

**A:**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인 청교도들의 사상적 뿌리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쯔윙글리(Zwingli, 1484-1531)에서 영향을 받은 것을 봅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문 앞에 붙이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면 쯔윙글리의 개혁은 성경적 강해설교를 강단에서 토하듯이 하는 설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쯔윙글리는 루터보다 훨씬 성경적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쯔윙글리는 1)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 위에 있다. 성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신부와 수녀도 결혼할 수 있다. 인간의 선행이나 성인숭배,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성직자 개념을 거부한다, 연옥신학도 거부한다. 2)예배를 개혁하지 않고는 종교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초대교회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로마카톨릭의 전통적 상징을 가차 없이 떼어내고 불태우고 버렸다. 성당의 촛대, 성자상, 마리아상, 그림, 성직자 예복, 십자가 벽장식 무늬 등도 다 제거했다.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로 설교했고 설교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잘 들리도록 성도들 한 가운데에 강단을 높이 설치했다. 3)성가대 중심의 음악이나 음악 전문가들이 독점해 드리는 예배찬송에서 청중이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 중심으로 바꾸었다. 4)개신교 예

## 루터보다 더 성경주의자 쯔윙글리는 영국 청교도들의 롤모델

배당도 개신교 철학에 근거하여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소박하게 지었다.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빈 공간이면 그것으로 만족했다. 5)쯔윙글리는 교회가 국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교회와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까? 교회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까지도 거룩하게 하려는 정신, 훗날 영국에서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퓨리탄(Puritan)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순결하게 한다(purify)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개혁을 뜻합니다. 이 퓨리탄들이 영국 청교도들입니다. 영국교회를 정화하고 사회까지 정화하려고 기울인 노력에서 나왔습니다.

훗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은 쯔윙글리는 롤모델(Roll Model)로 하여 그의 사상을 그대로 도입하여 성경적 개혁교회 뿐 아니라 이 땅에 성경적 기독교국가건설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이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쯔윙글리는 정신적 후예는 제네바의 칼빈이었고 또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되는 모델 크리스천국가를 꿈꾸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다 성경으로 다스려지는 사회를 원하였습니다.

1636년에 세워진 미국의 하버드대학이 미국 청교도의 보루인 칼빈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세워진 학교로서 목사를 만드는 신학교로 출발하였는데 첫 교수가 신학교수였습니다. 무식하고 무지한 목사가 사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시키기 위해 세워졌는데 나중에 8명의 대통령과 4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이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 부교역자청빙

순복음탬파교회는 항상 따뜻한 날씨와 모든 환경이 좋은 플로리다 탬파지역에 소재하며 주님의 지상최대의 명령인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과 섬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1. 정규신학교를 졸업, 또는 재학 중인 경험자 우대
2.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분
3. 미국거주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본인 및 가족 소개서(사진포함)
2. 학위 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3.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녹음파일이나 동영상 2회분
4. 추천서(목회자 1분, 이메일 또는 연락처 포함)

**제출처**
이메일: Rightpath 〈ohjikfait@aol.com〉
우편: 6901 W. Comanche Ave., Tampa, FL 33634
전화: (813)843-5057

**제출마감**
2019년 12월 21일

**사역내용**
풀타임-주일학교 전담
유아, 유년, Youth 주일예배 및 성경공부
교사 및 학생 지도와 훈련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순복음탬파교회
6901 W. Comanche Ave., Tampa, FL 33634
http://m.tampafgc.org/



#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 | |
|---|---|
| 신 청 유 형 | ☐ 본인구독<br>☐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
|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 한 글 : 목 사 ☐<br>영 어 : 평신도 ☐ |
| 배 달 주 소 | |
| 전화/Fax | ( )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받는분 이름 | 한글 영어 |
| 전화번호/Fax | ( ) ( ) |
| 배 달 주 소 | |
| 교회/기관명 | |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중국의 빠이(Bai)

민치아(Minchia) 혹은 파이(Pai)라고도 불리는 빠이족은 약 2백만 명에 이르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소수민족이다. 빠이족은 남중국에 위치한 윈난성(Yunnan)에 거주하는 가장 오래된 종족으로, 인구의 70%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다.

이들은 양쯔(Uangtze) 강 상류에서 얼하이(Erh Hai) 호수 하류에 이르는 지역에서 쌀농사를 하며, 주로 아름다운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호수나 에머럴드 빛의 계곡의 높은 산지에 집을 지어 사는데, 쾌적한 기후, 풍경, 적당한 고도 등의 좋은 자연환경 때문에 공산당원들의 휴식처로 인기가 높다.

"빠이"라는 말은 중국어로 "흰색"을 뜻하는데 처음에는 남서쪽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일컫던 말이며, '빠이멘(Baimen)'이나 '화이트맨(Whitemen)'이라는 말도 이들이 흰색 양피를 입고 있기에 그들을 부르는 말로 사용되지만, 정작 그들은 스스로를 "뽀지(Bozi)" "빠이후(Baihu)" "빠이지(Baizi)"라고 부른다.

### 삶의 모습

빠이족은 가족중심의 구조를 가지며 중국계 이족(Yi)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대부분이 농업, 수산업이나 사냥에 종사를 하며 주식은 쌀, 채소, 과일, 생선, 곡물 등이다. 빠이족들의 촌락은 주로 호수 근처의 비교적 황량한 땅이나 산중턱 마을에 형성되는데, 따라서 어떤 제한 없이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땅에서 자유롭게 쌀농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의 규모가 작으며 실내 배관시설이 없다.

빠이족에게 있어 대가족의 가족체계를 제외하고는 촌락이 가장 중요한 사회조직이다. 결혼은 일부일처제이고 중국의 다른 종족들과는 달리 여아(girls)들도 남자아이들만큼 귀하게 여긴다. 무거운 쟁기질을 하는 등의 일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모든 일을 동등하게 감당한다. 그래서 그런지 빠이족의 여성들은 항상 강인함을 자랑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장거리를 다니는 것도 전혀 어려움 없이 해낸다.

지난 1970년대 말부터 중국 경제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한 예로, 식료품과 국산품에 대한 자유 경쟁시장체제를 다시 시작하면서, 중국 내의 경제생활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빠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주로 외딴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생활수준 향상이 거의 없었다.

### 신앙

빠이족의 신앙형태와 중국의 전통 관습은 아주 흡사하다. 이들의 종교적 실천은 불교와 도교, 그리고 죽은 조상에게 기도하는 조상신에 대한 숭배 등이 함께 어우러져 형성됐다. 과거에 이들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 그들의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냈었는데 지금도 이런 의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빠이족은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불교적인 입장을 취한다. 불교는 바른 사고(정도-定度)와 제사, 자기 부정을 통해 "열반(nirvana-영원한 절대 평온의 상태)"에 이른다고 믿는다. 빠이족은 그들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항상 염불이나 종교의식, 희생을 통해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사람이 아프면 스님들을 모시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보통 집안의 가장이 처리한다.

### 필요로 하는 것들

빠이족은 중국의 지배로부터 거의 천년 넘게 자유로웠었는데 13세기에 그들의 자유는 끝나고, 당시 중국 황실이 빠이족의 귀족을 없앴으며 그들의 영토를 중국에 합병했다. 1949년 혁명 이후 소수민족에 대한 선입견이 더 심해지면서 끝내는 한족(the Han Chinese)이 빠이족을 말살시켰다. 1960년대 이후에는 빠이족의 전통과 언어문화도 점차 사라졌다.

현재 빠이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완전히 동화된 상태이며 빠이족 목사나 교회는 없다. 이들의 언어인 빠이어(Pai)는 문자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빠이어로 된 성경은 없다. 중국 안에 많은 지하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사역을 위한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훈련시킬 방법이 없다.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아시아 극빈자들에게 복음을" …챈 목사, 홍콩으로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명설교가인 프랜시스 챈(Francis Chan·사진) 목사가 내년 2월 홍콩으로 이주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곳을 거점으로 아시아의 극빈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예정이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7일 "챈 목사가 최근 미국 아주사퍼시픽대 예배에서 홍콩 이주 계획을 밝혔다"면서 "몇 달 전 미얀마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을 만난 뒤 아시아 선교를 꿈꿨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의 사역을 낚시에 비유한 챈 목사는 "마치 나의 삶이 평생 한 호수에서 수많은 낚시꾼들과 뒤섞여 다투며 낚시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면서 "익숙한 곳을 떠나 낚시하는 사람이 없는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많은 걸 변화시키겠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걸 믿고 따르겠다"면서 "홍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9년 동안 살며 복음을 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단지 성령이 이끄는 일상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챈 목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 1994년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한 뒤 5000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2010년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위해 교회를 사임한 뒤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지옥을 지우다'(Erasing Hell) '크레이지 러브'(Crazy Love) '잊혀진 하나님'(Forgotten God)은 2011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 이민자 정착하기 좋은 도시 1위 시카고

시카고가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꼽혔다.

포괄적 이민개혁을 추구하는 비영리 연구단체 '뉴 아메리칸 이코노미'(New American Economy·NAE)는 14일 발표한 '2019 도시 지표' 보고서에서 "시카고를 정착지로 선택한 이민자들은 미국 내 다른 어떤 도시의 이민자보다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NAE는 센서스 데이터에 기반한 미국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방침', '경제력 육성', '포용성', '커뮤니티 역량', '법적 지원' 등 5개 범주의 총 51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결과를 산출했다.

분석 대상 도시는 총인구 20만 명 이상, 외국 출생 인구 1만 명 이상으로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최소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NAE는 밝혔다.

시카고는 이민자에 대한 시 정부의 관여와 지원 면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으며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4.38점으로 1위에 올랐다.

NAE 측은 "시카고는 이민서류 미비자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 수혜자 등을 위한 법률 지원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며 "다만 이들에게 저가 주택 및 소득 평등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전했다.

2위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출라비스타(4.33점)가 차지했고, 이어 3위 뉴저지 주 저지시티(4.30점), 4위 샌프란시스코(4.25점), 5위 볼티모어(4.23점), 6위 뉴욕(4.03점), 7위 새너제이(3.93점), 8위 뉴어크(3.93점), 9위 애너하임(3.93점), 10위 오리건 주 포틀랜드(3.90점) 순이었다.

NAE는 "전통적인 이민 관문 도시들이 지금까지 이민자 친화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NAE는 뉴욕 시장을 지낸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민개혁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목표로 미국 대도시 시장들과 사업가들을 모아 2010년 설립했다.

지난해 처음 발표한 NAE 도시 지표 보고서에서 1위는 뉴어크가 차지했고, 시카고는 8위를 기록한 바 있다.

### 미하원 외교위원장 "주한미군 철수 어리석은 일…"

미국 민주당 소속의 엘리엇 엥걸(사진) 하원 외교위원장이 12일 "주한미군 철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나는 완전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엥걸 위원장은 또 "우리는 항상 (한국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하원 지도부 인사가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엥걸 위원장은 이날 한미공공정책위원회가 워싱턴의 미 의회에서 개최한 '한·미 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엥걸 위원장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은 전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부자 나라인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엥걸 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는 일인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나는 완전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내 생각에 김정은은 우리를 좀 더 평화로 이끄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탄을 만드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만든 폭탄을) 내다버릴 수 있지만 (새로운 폭탄을) 만들 지식은 늘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엥걸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버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두 번 만났는데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그들(북한)이 핵무기를 버리고 다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버리는 아주 긍정적인 방안을 우리가 볼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엥걸 위원장은 이어 "나는 솔직히 우리가 그들(북한)과의 협상에 매우 터프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가장 위험에 처하는 나라가 한국일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막무가내 방위비 압박에 美정치권 "갈취수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5배 인상하라는 등 과도한 요구를 쏟아내자 워싱턴 정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하듯 안보문제를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역시 비슷한 수준의 분담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레이스 맹 민주당 하원의원은 15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00%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는 최근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런 공격적인 협상 전략은 한·미 동맹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접근 방법을 재검토하고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16일 미국의 소리(VOA)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은 동맹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믿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하지만 안보상 이익을 경시하고 동맹국에게 금전적 기여만을 강요하는 자세는 그런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최근 "외국에게 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라고 권유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폭력배가 돈을 갈취하듯 안보정책을 운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 만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이라며 "상원 군사위 소속으로 이 문제를 조만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은 "한국은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짓는 데 기여한 훌륭한 동반자"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전 세계가 그동안 글로벌 안보에서 미국에게만 기대왔음을 일깨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주일미군 유지비로 매년 현재의 4배에 달하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현직 미 관료를 인용해 전했다. 지난 7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일본을 방문해 무려 8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키신저 "미중 갈등 지속되면 세계대전보다 재앙적"

미국 외교의 거두로 통하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중 무역분쟁의 결과가 재앙적일 것으로 경고했다고 마켓워치가 15일보도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전날 저녁 뉴욕에서 열린 '미·중 관계 위원회'의 연례 만찬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 "한쪽이 상대 쪽을 지배한다는 것은 더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경쟁 구조"라면서 "영원한 갈등에서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미·중 양국이 이해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영원한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유럽 문명을 파괴한 세계대전들보다도 더 나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 이슈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그것은 미·중 양국이 전 세계에 기여하는 1단계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완벽한 합의는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해결책을 찾고 불가피한 차이를 관리하려는 양국에, 전 세계 미래가 달렸다는 것을 양국 지도자들이 깨달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5년째 채택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이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다음 달 채택될 예정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4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올해엔 빠졌다.

주유엔 한국 대표부 측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 요청을 하지 않아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하며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결의안 초안은 유엔 주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 북한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접촉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발언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 문제들을 조작해 공화국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동제안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 일제강점기에 반인권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50)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 흑사병 대량 죽음으로 농노제도 붕괴 자본주의 발전 발판 마련
## 죽음의 공포로 하나님 신뢰도 증가...중세교회는 재정 축적 이뤄

### 죽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식생활이 개선되고 의학이 발달되어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을 찾아온 죽음의 손길을 뿌리칠 수는 없다. 죽음 앞에 강자가 따로 없다. 모두 공평하다. 아마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세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른 시대에 비교할 때 죽음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14세기에 유럽지역에서 유행하였던 흑사병(Black Death) 때문이다.

흑사병은 페스트균이 일으키는 감염질환이다. 이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열이 나고 몸이 붓고 피부의 조직이 괴사되어 피부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게 된다. 중세에 유럽에서 창궐하던 흑사병은 331년에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지방의 풍토병이었지만 비단길을 통해 무역이 성행하던 유럽 사이를 왕래하던 화물선에 기생하던 쥐벼룩이 병균을 옮긴 것이다. 또한 14세기 무렵 몽골군이 유럽을 침략하기 위하여 흑사병에 걸려 죽은 군인의 시체를 쥐가 들끓던 더러운 도시의 성벽 안으로 던지는 전략이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어째든 전염성이 강한 흑사병을 대처하면서 유럽사회가 심각한 혼동에 빠져들었다. 전염병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걸인이나 외국인 등 특정인들을 원인제공자로 지목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치료를 위해 온갖 주술과 부적은 물론, 터무니없는 치료법을 사용하였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귀족 일부 성직자들이 아예 도시를 떠나 시골로 피신하기도 하였다.

전염병을 중단시키거나 피하려는 온갖 노력은 허사였다. 유럽인들은 이 치명적인 병을 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거듭되는 흉작과 대조적으로 늘어나던 인구로 인해 대부분 영양실조에 걸려있었다. 또한 자주 목욕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결국 하루 수백 명씩 죽어나갔다.

### 죽음에 대한 공포

매장되지 못한 시신들이 거리에 넘쳐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유럽 전역을 뒤덮었다. 원인도 모르는 전염병으로 인해 결국 세상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사라지면서 더욱 심한 불안감에 떨어야만 했다.

공포심을 달래기 위하여 그들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하나는, 종교심을 극대화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다. 낮은 자세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행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라거나, 만일 죽는다 하여도 천국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기도 하였다.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순간을 즐기는 것이었다. 이들은 운명의 날이 오기 전에 삶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이탈리아의 소설가 지오반니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 1313-1375)가 거주하던 플로렌스에서 흑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자, 그곳을 탈출하여 시골 마을로 피신한 뒤 저술한 '데카메론'에 잘 반영되어 있다.

결국 흑사병이 사라졌다. 그러나 유럽 총 인구가 약 1/3으로 급격하게 감소되었으며, 이로서 사회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찾아왔다. 예를 들어,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농노제도가 붕괴되었고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흑사병으로 사망한 부유한 귀족이 남겨놓은 재산을 친척들이 물려받으면서 중산층이 새롭게 출현하기도 하였다.

비록 절박한 상황을 모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뇌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죽음이란 더 이상 한평생을 지낸 후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지속되면서 중세인들은 연약한 인간은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나 죽음의 손에 의해 끌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결국 공포심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죽음의 보편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 죽음을 대면함

'죽음의 미학' 또는 '죽음의 기술'로 번역될 수 있는 'Ars Moriendi'는 15세기 유럽사회에 등장한 작자미상의 책이다. 1415년과 1450년에 라틴어로 출판된 이 책은 신앙을 지닌 자들이 잘 죽기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을 소개하는 글과 그림을 담고 있다. 유럽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장시간 인기를 누리기도 하였다.

'죽음의 미학'은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죽음을 맞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과 의문이 어떤 것들이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서술되어있다. 또한 죽음을 맞는 당사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권면하며, 옆에서 그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임종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안내가 기록되어 있다. '죽음의 미학'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대면하게 함으로서, 흑사병이 이후 지속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었다

유럽인들이 일반적으로 모색한 죽음을 대면하는 다른 방법은 매우 특이하다. 징그러운 모습의 해골의 모습과 친숙해지는 것이다. 사실 해골은 예나 지금이나 거부감을 유발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15세기부터 해골이 저승사자의 신분으로 소개되었다. 호흡이 그친 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중세 말에는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라는 새로운 미술장르에 등장한 해골의 모습을 흔하게 만날 수 있었다. 교황으로부터 평신도까지, 노인으로부터 어린이까지, 국왕으로부터 노동자까지, 심지어 젊은 여성들도 해골의 모습으로 무덤 주위에서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있다. 해골들 곧 당신들도 우리와 같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즉,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헛된 일이며,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라는 교훈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다. 아비뇽의 한 추기경의 무덤에 세워진 비석에 징그러운 동물들이 시체를 파먹는 모습이 조각되기도 하였다. 오가며 이 무덤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결국 죽음 뒤에는 이런 썩은 모습으로 변할 것임을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직면하는 중세인들의 태도를 통하여, 그들이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을 두려워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죽음은 현실이기에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으며, 생명이 있는 동안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 죽음과 신앙

중세인들의 대다수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흑사병이 창궐할 때에는 물론, 해결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주실 것을 기대하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부를 축적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죽음이 찾아오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떠나가야 한다는 참담한 현실이 그들의 종교성을 자극한 것이다. 자연히 중세교회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들에게 위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이에 따른 온갖 신앙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이 중단되지 않고 더욱 치명적인 모습으로 확산되면서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기대와 달리 중세사회를 장악하고 통제하던 교회가 죽음이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였다. 또한 교회 일부 성직자들이 죽음을 피해 피신하였기에 남아있던 신도들의 신뢰를 상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죽음 자체와 죽음 뒤의 형편에 대한 신학적 탐구가 진행되었기에, 흑사병이 중단된 뒤 중세인들이 지녔던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제공할 수 있었다. '종부성사'는 야고보서 5장 14-15절에 근거하여 삶의 종착역에 이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이다. 그러나 서방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임종 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노 또는 영광 중 어느 곳으로 갈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원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가르쳤다. 동방교회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간다고 계속하여 가르쳤지만, 서방교회는 어거스틴의 전통을 거부하였다. 스콜라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어거스틴의 주장처럼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결국 서방교회는 림보와 연옥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 몰두하게 되었다.

아퀴나스는 원죄에 의해 더렵혀진 상태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죽은 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유아 림보'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서방 신학자들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근거하여 연옥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였다. 그들은 고해성사를 실행하기 전에 죽은 자들은 지옥이나 천국이 아닌 곳, 즉 일시적으로 처벌을 받으며 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연옥으로 간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고통스러운 이곳에서 지내면서 '치명적인 죄'가 아닌 '용서받을 만한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함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면죄부

면죄부(Indulgentia)는 서방교회의 교황이 지닌 사면권을 수여받았다는 일종의 증명서이다. 이 제도는 교황이 1905년 첫 번째 십자군에 참여한 자들에게 대사면을 약속하며 처음 생겼다. 그 후 면죄부가 대중화 되었다. 죽음이란 현실이 찾아온 뒤 지옥에 가는 일이 너무도 끔찍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을 위한 면죄부를 구입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흑사병으로 인해 시작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중세 유럽의 교회는 재정적으로 차고 넘치게 되었다.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 재건축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순진한 성도들을 향해 연옥을 가르치면서 공포심을 불어넣은 뒤 면죄부를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부패를 지적할 때 면죄부 판매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타락한 중세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성경의 자명한 가르침을 외면하였다. 죽음은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아픈 일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피의 복음을 믿을 때 천국에 간다는 원색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절실한 때이다.

covenantcho@yahoo.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차성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 일 학 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562)691-0691, Fax.(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 오전9:45(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핌(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 예배 : 10시 50분
민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3944 Wlishire Blvd, LA, CA 9001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 리더십 코멘터리 (100)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리더는 지혜의 선물을 나누어주며 11월을 보낸다

### 1년간 주어진 시간과 기회, 잘 포착해 활용했는지 점검
### 묵은 생각, 감정, 습관, 버릇 등 묵은해와 함께 다 버려

당신은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미가서 6장 8절은 인생 최고의 리더와 동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에는 순종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등장한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에녹을 들 수 있다. 그는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만을 앞세우며 나아갔다. 노아는 모두가 부정적일 때, 혼자만 하나님께 긍정마인드로 화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제 11월을 보내며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간의 어떤 지식도, 철학도 인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지만 바이블은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이상주의자, 현실주의자, 허무주의자

출발역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듯이 인생도 총결산을 해야 하는 날이 있다. 인생은 한해를 시작하는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었다가 익어가는 청포도가 생각나는 6월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한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허무주의자'가 된다.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비전을 갖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며 계획을 세웠다가 6개월이 지나면 세웠던 계획들을 마음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만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만다. 시간이 흘러 연말이 되면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라는 생각으로 허무해 한다. 이상적인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버려 "내 인생이 고작 이것밖에 안되는가?" 라는 생각으로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된다. 한해를 마감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으며 세월의 빠름을 실감한다. 세월은 유수와 같고 인생은 결국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것이 인생이다. 리더십은 생각에서 출발한다. 오늘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결산해 보아야겠다.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한 리더였는가?

이제 지나간 한해는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흘러간 시간이 되었다. 2019년도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참으로 살같이 빠른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간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끝을 어떻게 잘 마무리 하느냐가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 끝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의 수고와 아픔이 가치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가치하고 허무한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Kairos) 동상이 있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관람객들은 처음에 웃음을 터뜨리곤 한다. 그 이유는 동상의 모습이 일단 벌거벗었고,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 등과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왼손에는 저울, 오른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는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상 아래 새겨진 글귀를 보고는 모두 감명을 받는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까닭은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등과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까닭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오른손엔 칼과 왼손엔 저울이 있는데 이는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한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당신은 리더로서 교회와 사회에서 지난 1년간 주어진 많은 시간과 기회들을 잘 포착하여 잘 활용하였는가?

묵은해와 함께 버리고 가야할 것

세월과 함께 사라져 가는 인생사에서 가는 세월과 함께 생각해야할 인생의 교훈들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가는 세월이 아쉬워 감상적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빠른 세월에 대한 허탈 속에서 생의 허무감을 느끼기도 한다. 진실된 마음으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라. 사람들은 새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할 때, 옛날 것은 다 버리고 간다. 이사를 할 때 예전에 쓰던 물건들은 버려야 한다. 새집에 옛 가구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묵은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한다. 사람들은 연말을 맞으면 한 번쯤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한다. 과거의 불행했던 일들, 지난날의 무거웠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난날의 것들을 잊으려고 한다. 좋지 않았던 생각들,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다 잊으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가야할 것인가? 묵은 생각, 묵은 감정, 묵은 습관, 묵은 버릇 등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묵은해와 함께 다 버리고 가야 한다.

선물을 나누어주는 11월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위스칸신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천체물리학자 첸드리스카 박사는 시카고대학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사님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 대학에 와서 고급물리학에 관한 특별강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는 흔쾌히 승낙을 했다. 그런데 몇 주후에 다시 대학으로부터 강의를 취소해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이유는 학생이 두 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첸드리스카 박사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두 학생을 가르쳤다. 그해 겨울 시카고 거리는 유난히 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는 시카고대학에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강의를 계속하였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흘러갔다. 첸드리스카 박사로부터 강의를 들었던 두 사람이 함께 노벨물리학상을 받게 되었다. 한 사람은 첸닝 양 박사였고 또 한 사람은 충도 리라는 중국계의 미국 과학자였다. 그들은 노벨물리학 수상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첸드리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참다운 리더는 지혜의 선물을 나누어주며 11월을 보낸다.

sondongwon@gmail.com

#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 턴 투워드 부산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루 44조'의 매출을 올린 중국 광군제이야기다. 2019년 광군제 매출액이(1분36초만에) 백억위안(약1조6천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입에 발린 듯 죽겠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부득의 현상이다. 1분 36초에 약 1조6천억 원, 하루에 44조 6천2백억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서 11월 11일 하루 동안에 이뤄진 거래금액이다.

11월 11일은 한국에서는 빼빼로 데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날을 광군제, 즉 독신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숫자 1이 사람이 혼자 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데 착안해서 1이 4개나 겹친 11월 11일을 '솔로데이'로 만든 것이다. 한 대학교에서 애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위로하자고 만든 걸 알리바바가 빠르게 마케팅에 활용하여 쇼핑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면서 2009년부터 행사를 열었고 이제는 쇼핑의 날로 자리 잡은 것이다. 중국의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함께 행사를 여는데 업계 2위 업체도 어제 하루 34조원에 달하는 거래금액을 기록했다고 한다.

광군제의 성공비결은 다양한 물건을 싸게 팔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도 파격적인 가격에 물건을 내놓을 뿐 아니라 24개월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이 더해지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까지 접목되었다.

해외 기업들도 이날은 대목이다. 전 세계 84개 브랜드가 1억위안, 우리 돈 166억원 이상을 팔았는데 한국의 삼성전자와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후, 그리고 휠라가 포함되었다. 해외 직접 구매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11월 11일을 대한민국은 다른 의미로 기억해야 하는 날이다. 우리 쌀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래떡을 나눠먹고 초콜릿 과자를 선물하는 날로 아는 분들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자유와 평화와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바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부산을 향해 엄숙한 추모 묵념을 올리는 날이기 때문이다.11월 11일 오전 11시. 전 세계가 2,300분의 한국전쟁 전몰장병이 안장된 부산 남구의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 동안 추모 묵념을 한다.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으로 불리는 이 행사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의 '빈센트 커트니' 씨가 2007년 발의하여 매년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를 향해 추모하자"는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관심도 적은 편이다.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함께 추모 묵념하며 "죽음도 불사하며 죽어간 용사들의 용기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용사들이 삶으로 보여준 용맹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존 F. 케네디의 정신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hanmac@cmi153.org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 요 기 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만약 당신이 동서남북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어떻게 탈출구를 찾겠는가? 인생의 모든 경험과 배운 지식을 다 동원해도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자유로운 탈출구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7문은 하나님의 작정교리에 대하여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다. 문: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시편 33:11, 이사야 14:24, 사도행전 2:23, 로마서 9:22-23, 에베소서 1:4,11-12).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을 생각하셨고, 결심하셨고, 결정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총체적인 방식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교리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어려운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교리는 사람의 보잘 것 없고 미약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인정해야 할 사실들이 있다.

첫째,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말은 성경이 계시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두어들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의 계시를 넘어서는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은 성경의 계시가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의 계시가 멈추는데서 멈추는 것이다. 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이 성경의 계시가 비추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패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가진 비뚤어진 관점일 뿐이다. 성경의 계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모순되지 않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사건들을 포함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사건들을 결정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사건들의 결론과 과정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 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2주전에 필자가 사는 지역의 한인교회들이 연합으로 부흥회를 가졌는데 강사로 손인식 목사님(얼바인 벧엘교회 원로목사)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다. 손인식 목사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지난날의 목회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다. 특히 23년간 목회하셨던 교회를 은퇴 이후에 너무나 가보고 싶은데 혹시나 교회에 부담이 될까봐 새벽 1시에 혼자 교회 파킹랏에 가셔서 교회를 바라보며 울며 돌아오셨다는 말씀에 마음이 찡하였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부흥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신지 며칠 후에 집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시고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여서 수술을 마치고 현재까지 무의식 가운데 계신다.

필자의 마음에 두 마디 질문이 치솟아 올라왔다. 왜? 어떻게? 필자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제가 해답을 얻은 곳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었다. 결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며 과정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므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필자의 이성과 지성으로 납득이 되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다. 필자의 이성과 지성이 모든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신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앞에 굴복하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사건들의 과정과 결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당신은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다.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당신 자신의 미약함과 부패함와 유한성을 상기시키라. 그날(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때)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모두 다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보류해 두라.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적인 작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아파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절망하지도 말아야 한다.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통채로 내어주실 정도로 당신을 진실로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자 발표

## 우수상: 이다복, 김화성, 김장혁 | 장려상: 한연선, 김재윤, 정희수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쾌장로)가 주최하고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목사)가 후원한 제 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에서 '나를 돌보는 시간'을 읽고 독후감을 쓴 이다복(버지니아 휄로십교회), 김화성(영국 에어처치), 그리고 '내게 힘을 주는 교회'를 읽은 김장혁(LA 엘로힘교회) 등 세 명이 우수상을, 장려상에는 '포기하지 마'를 읽은 한연선(산호세 임마누엘교회), 김재윤(캐나다), 그리고 '나를 돌보는 시간'을 읽고 쓴 정희수(LA 인랜드교회) 씨가 각각 선정됐다.

언론협 주최 제 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심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년 5회째를 맞는 본 독후감 공모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독후감의 문학적, 신앙적 성숙도가 높아지는 한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브라질에서 응모자가 나온 것은 그만큼 신앙도서 독후감 운동이 지구촌으로 확대되고 있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LA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언론협회 임원들과 만난 백승철 심사위원장(문학평론가)은 "회를 거듭할수록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독후감 작품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후감을 여러 나라에서 응모하는 계층도 역시 넓어지고 있다"고 며 최종심에 오른 25편이 모두 훌륭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이 독후감 공모행사를 후원하는 기독교서점협회 전인철 목사는 "한국에서도 독후감 공모전이 여럿 있지만 높은 상금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매년 독후감 운동을 진행하는 곳은 세계기독언론협회가 주관하는 이 공모 행사가 유일할 것"이라며 "매년 이 행사를 후원하는 일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6회부터 목회자와 평신도 부문을 나눠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각 지역교회 담임목사와 협력해 평신도들의 '최다독서상' 혹은 '성경통독상' 등도 검토해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달러와 상패, 그리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달러와 상패가 각각 전달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금) 오전 10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2019년 세계기독언론협회 정기총회에서 있게 된다.

〈이성자 기자〉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주최 목회자 세미나에서 민종기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강사 석희정, 민종기, 강준민, 김한요 목사

## 아주사퍼시픽 한인석사과정 제8회 목회자 세미나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폴 퍼거슨 박사) 신학대학원 한인석사과정프로그램(디렉터 변명혜 박사)이 주최한 제 8회 목회자세미나가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옥스퍼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됐다.

로버트 듀크 본교신학교 학장 환영사와 변명혜 박사 소개로 시작된 세미나는 석희정 목사(새생명비전교회 어린이부서 담당)가 '이민교회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했다.

석 목사는 "이민사회에서 교육사역의 어려움은 가치와 문화의 혼동으로 나타난다"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아이들만의 문화를 분명히 잡고 깊이 갈 수 있다면 이러한 혼동은 극복할 수 있으며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교회와 선교동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담임)는 "중남미 기독교역사는 범죄의 역사였다. 중남미 선교지의 도심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에서 온 이주자들이 거주하며 조금 떨어진 곳에는 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거주한다. 그리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가야 원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목사는 "선교는 상황을 돌아보며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의 터다.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며 "총체적 상황으로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선교다양성으로 열리고 있다. 다양한 선교방법이 시작됐다. 문화이해가 확산돼 문화매체로 선교가 열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SNS시대의 공감목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는 "SNS시대는 접속은 많지만 친밀한 접촉이 부족한 시대"라며 "한국의 경우 10대 청소년 64%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5명중 1명은 스마트폰을 하루 7시간 사용한다"고 말하고 "SNS시대에 필요한 것은 공감목회"라며 "공감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공감을 위해서는 소통할 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설교, 목회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는 "설교자가 강단에 설 때 청중 중에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과 각오를 가지고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북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요한계시록 하나님 백성의 승전가"

## 미주장신 제 3회 북콘서트, 공동저자 4명 사인회도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제3회 북콘서트가 13일 오전 11시40분 채플실에서 개최됐다.

박동식 교수 사회와 학생처장 김루빈 교수 기도로 시작된 북콘서트는 '요한계시록 하나님 백성의 승전가'라는 책에 대해 이상명 박사,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박일룡 목사(로뎀장로교회),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등 4명의 공동저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상명 총장은 "4명의 저자가 함께 집필한 이 책은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희망과 구원에 대해 하신 말씀이 담겨있다"며 "계시록연구가 많이 이뤄졌다. 문헌보증적 고고학적으로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이 취했던 모습들이 드러나 이해할 수 있다. 묵시와 묵시문학적 특성이 제대로 이해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이자 현재 악한 요소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상 속에 살아야 하는 영적 메뉴얼이다. 박해 속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메뉴얼"이라 소개했다.

민종기 목사는 계시록에 나타난 정치윤리에 대해 다뤘다. 민 목사는 "계시록 당시에도 황제숭배 공공연하게 요청됐다. 네로 카리쿨라 도미티안 등 황제들은 정치지도자를 떠나 신적존재로 인식하고 숭배하길 바랐다"며 "사람을 신으로 믿게 한 거짓선지자는 타락한 교회의 활동을 말해준다. 도시가 바벨론으로 표현되는데 당시 로마다. 하나님백성들의 승리는 이미 예정돼있다. 승전가가 작곡돼있고 승전가를 부르기 합당하게 믿음으로 생활하도록 용기를 주는 책"이라 말했다.

박일룡 목사는 '요한계시록과 교회'라는 주제로 저술했다. 박 목사는 "계시록은 누구든지 오늘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며 구조 내용을 보면 핵심내용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며 "계시록은 영광스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건물로 표현한다. 원래부터 하늘에 존재한 영광스런 교회모습.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내려와 전투적 교회와 하나 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가 '요한계시록과 설교'라는 주제로 책 내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신웅길 교수(풀러신학교)와 미주장신대 박동식 교수와 박일서 교수, 그리고 김남중 교수(클레어몬트신학교)가 서평했으며 질의응답 시간과 저자 사인회를 갖고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세계선교회 전문인 선교사 파송식 및 정기 이사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앞줄 좌측 세번째가 이사장 유재일목사

# 신임이사장 유재일 목사, 권강혁 선교사 파송

## KAPC세계선교회 전문인선교사 파송식 및 정기이사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세계선교회는 지난 10월 8일 오전 7시 30분 터키 이스탄불에 모여 전문인 선교사 권경혁 씨의 파송예배를 드렸다.

본 파송예배는 한일철 목사(선교회 회계) 인도로 시작돼 박광석 선교사(선교회 본부장) 기도, 조문휘 목사(이사장) 설교('거룩산 산제물', 롬12:1)로 진행됐다.

이어 한일철 목사는 권강혁 선교사를 소개했으며 조문휘 목사가 선교사 서약 및 선교사 위임, 안수한 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 파송선교사임을 공포했으며 본 교단 총회장 및 이사장 명의의 파송패를 증정했다. 또한 총무 김영기 목사의 권면이 있은 뒤 유재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같은 날 오후 9시, 세계선교회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사회에 앞선 개회예배는 조문휘목사 인도로 김선중 목사 기도, 이만수 목사 특송이 있었으며 총회장 양수철 목사가 설교(창 49:5-7)한 뒤 천성덕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이사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임원개선을 통해 이사장 유재일 목사, 회계 장성철 목사가 피선됐으며 조문휘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이날 세워진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유재일 목사(가미노회, 앵커리지 열린문교회) △부이사장 이길호 목사(뉴욕동노회, 뉴욕성실장로교회) △서기 한세영 목사(워싱톤노회, 메시야장로교회) △부서기 김현국 목사(수도노회, 볼티모어장로교회) △회계 장성철 목사(뉴잉글랜드노회, 보스톤장로교회) △부회계 임철성 목사(중부노회, 헤브론교회) △본부장 박광석 선교사(뉴욕동노회)

세계선교회는 웹사이트(kapcwms.net)에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박광석 선교사(856-631-5056)에게 문의하면 된다.

선교회비는 Pay to: KAPC WMS(Rev. Steven Chang 2 Main St. Hopkinton, MA 01748)로 보내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 동부교계 게시판

east

### 뉴욕청소년센터 '성'정체성 세미나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 이사장 송윤섭 장로)가 주최하는 "성경, 남자와 여자를 말하다"(성경에 비추어 본 '성'정체성 세미나)가 12월 1일(주일) 오후 5시 뉴욕영락교회(담임 최호섭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박세웅(Assistant Professor,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정서영(Associate Director of Community Programs, Womankind).

▲문의: (718)279-1313

### 뉴욕빌립보교회 오르간 헌정 감사예배 및 기념음악회

뉴욕빌립보교회(담임 박희열 목사) 오르간 헌정 감사예배 및 기념음악회가 12월 1일(주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이용걸 목사(필라영생장로교회 원로)이며 비브리신학대뉴욕동문목사중창단이 특송한다.

▲문의: (718)358-3200

### ATS한인동문회 정기총회

ATS한인동문회(회장 김연수 목사) 2019 정기총회가 12월 2일(월) 오후 6시 뉴저지초대교회에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의: (917)770-5080

### 나눔디너콘서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주최하는 나눔디너콘서트가 12월 15일(주일) 오후 5시 KCS홀에서 열린다. 월드밀알선교합창단과 뉴욕사모합창단, 제시유&앙상블, CBSN무용단, NYMAS앙상블이 출연한다. 티켓은 100달러.

▲문의: (718)683-8884

### N세대사역 네트워크 5회 정기모임

N세대사역 네트워크 5회 정기모임이 12월 8일(주일) 오후 6시부터 9시30분까지 뉴욕주님교회(46-08 161 St., Flushing)에서 열린다. 저녁식사 후 예배에서 설교는 노진산 목사가 하며 N세대를 위한 기도 후 선택식 세미나 1, "4차 산업혁명시대, 다음 세대의 비전과 직업"(발제자 조희창 목사) 세미나 2 "불법의 시대, 한국교회의 미래를 성찰한다"(발제자 이승재 집사)에 이어 N세대 사역을 위한 발전적 논의와 제안이 있다.

▲문의: (646)266-0039 장규준 목사, (718)309-0548 마요셉 전도사

뉴욕사모합창단 첫 연주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 7계명 범한 L목사 '제명'

##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임시총회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임시총회가 지난 15일 정오 베이사이드 삼원각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31일 뉴욕한국일보에 첫 보도된 후 뉴욕교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뉴욕교협 증경회장 L목사에 관한 방안책 마련으로 모인 이날 임시총회는 회의에 앞서 경건회를 드리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회장 송병기 목사는 이날 모임의 안건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모두 16명의 증경회장이 모인 자리에서 황동익 목사는 "드러난 죄가 없을 뿐 우리 모두 죄인임을 시인하고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좀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박희소 목사는 "본인이 오지 못했으니 기도하고 마치자"고 말했으나 김원기 목사가 "법적인 문제는 사법부가 할 일이며 사법부 판결과 관계없이 7계명을 범한 것이므로 증경회장단이 책임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지각 목사는 "5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건을 조사하고 다시 모여서 결정하자"고 했으며 한재홍 목사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저런 말들이 오간 가운데 김원기 목사의 '제명'(1안), 황동익 목사의 '5인조사위 구성'(2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0대 6으로 1안이 통과됐다.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으나 결국 통성기도로 이날 모임을 마무리 했다.

한편 송병기 목사는 "회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임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부회장은 양희철 목사이며 총무는 이재덕 목사다.

〈유원정 기자〉

# 찬양과 간증 어우러진 뮤지컬 '알렐루야'

## 동부개혁장신 2019 장학기금위한 두 번째 찬양축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제 33회 장학기금을 위한 두 번째 찬양축제가 11월 14일 저녁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세 번째는 20일(수) 오후 8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린다.

예배는 학장 김성국 목사 인도로 기도 전행복 학우, 성경봉독 김금희 학우, 설교 허윤준 목사(학감), 신학교합창단 찬양, 헌금, 축도 홍춘식 목사(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노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학장 김성국 목사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사회와 후원자들의 사랑가운데 신학교가 성장하며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게 됐다며,

〈13면으로 계속〉

제46회기 뉴욕교협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Together! '통합, '연결, '함께'

## 제46회기 뉴욕교협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제 46회기 뉴욕교협 회장 및 임실행위원 34대 이사장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지난 11월 17일 저녁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장 양민석 목사는 Together! Let's go Together!를 외치며 5가지 실행사항을 발표했다. ①실행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 ②작은 교회 활성화에 관심 ③1세와 2,3세가 참여하는 교협 ④대사회적 관심과 활동 ⑤친근감 있는 교협.

양 목사는 '통합', '연결', '함께'를 강조하고 교계가 화합하고 교회와 사회가 협력하며 1세와 2세가 영적 친밀성을 갖추는 교협이 되도록 노력하며 또 교협회관 모기지 28만 달러를 큰 교회 협력을 받아 빚 없는 교협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1부 예배는 황영송 목사 인도로 시무기도 박태규 목사, 성경봉독 송윤섭 장로, 특송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김정호 목사, 헌금송 KMC/UMC목사&사모중창단, 헌금기도 유일용 장로, 축도 김해종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호 목사는 "인정받은 사람들"(행11:19-2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인정받은 안디옥교회처럼 우리도 인정받아야 한다"며 "첫째, 스데반의 순교 후 세상으로 흩어져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는 복음전파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 셋째, 부활의 증거가 드러나는 교회 넷째, 바나바처럼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고 자신은 물러나 지도자를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교협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했다.

2부 이취임식은 이창종 목사 사회로 기도 김종훈 목사, 이임사 정순원 목사, 교협기인계, 격려사 방지각 목사 김성찬 목사, 축송 뉴욕목사&사모합창단, 축사 장동신 뉴저지교협회장 김용걸 증경회장 이만호 증경회장, 축송 뉴욕그레잇넥교회성가대, 취임인사 양민석 목사 손성대 장로 김영호 장로, 임원소개, 위촉장 수여(강사영 접분과 김진우 목사, 정준호 최창호 변호사), 감사패 증정(정순원 목사, 이은수 목사, 김주열 장로, 안경순 목사), 광고 문정웅 목사, 폐회 및 만찬기도 이미선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찬 UMC LIW감리사는 양민석 목사에게 PHD(Preach the Gospel, Healing the Sick, Drive out Demon) 증서를 전달하며 축하했으며 동영상 "인간이 상황을 지배한다" 3의 법칙이 상영되기도 했다.

정순원 목사는 이임사에서 "지난 회기 7회의 집회와 2회의 세미나를 하며 60마일로 달려왔다. 성결한 삶을 이뤄나가는 46회기가 바라며, 주는 목회자 주는 사역을 하라"고 역설했다.

손성대 평신도부회장과 김영호 이사장은 회장을 잘 돕겠다고 취임인사를 했다.

이날 발표된 46회기 임실행위는 특별고문위, 특별협력위, 특별자문위, 특별기획위, 협동총무단을 만들고 A목회분과(총괄 황영송 목사), B 행사분과(총괄 김희복 목사), C 대내외사업분과(총괄 박마이클 목사), D 문화교육친교분과(총괄 윤오성 목사)로 나눠 각 분과 안에 19-21개의 분과를 두었으며 32개의 특별위원회와 사이비언론대책위, 주소록출판 및 홍보위 등을 조직했다.

한편 신년하례준비위원장은 조원태 목사, 부활절준비위원장 김영철 목사, 할렐루야복음화대회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1세), 황영송 목사(2세)로 발표했다.

〈유원정 기자〉

# 기독교인만 가입, 미션펀드 조성

## 의료비 나눔사역 '예수나눔의료선교회' 런칭

예수나눔의료선교회(YehSoo Care Ministry)가 지난 11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런칭을 알렸다. 동 선교회는 의료비 나눔사역의 일환으로 10가정 이상 그룹 회비의 10%를 미션펀드로 조성해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대표 정철환 장로(시카고 아도나이교회 시무)는 기독의료상조회와 같은 개념이지만 △미션펀드 조성 △예방검진비용 지원 △SavNet과 협력으로 20-70% 디스카운트 혜택 △한국에서 수술 및 입원시 2인 항공료 및 2박3일 체류비 지원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서류미비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케팅최고책임자 김경호 목사는 기독의료상조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낮은 비용이 가능한 이유는 현금지불로 디스카운트를 받기 때문이라며, 케어어드벤티지(1인 169달러, 커플 319달러, 패밀리 419달러), 케어플러스(1인 129달러, 커플 255달러, 패밀리 379달러), 케어베이직(1인 39달러, 커플 78달러, 패밀리 117달러)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목사는 이 의료선교회는 기독교인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독교 가치관에서 벗어난 질병(술, 담배, 마약, 낙태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동 의료선교회는 한국 고려대병원, 세계로병원과 MOU를 맺고 한국에서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동부지역 뉴욕홍보위원 오태환 목사는 3년전 은퇴하고 보람 있는 일을 찾던 중 이 의료선교회를 만나 뉴욕책임자로 일하게 됐다며 19일과 20일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갖는다고 말했다.

▲연락처: (917)829-1789 오태환 목사

〈유원정 기자〉

'예수나눔의료선교회' 런칭 기자회견에서 정철환 장로가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재은 한국부대표, 정철환 장로, 오태환 목사, 김경호 목사.

33회기 뉴저지교협 시무예배 및 회장 • 이사장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복음을 사는 교협" 표어로 출발

## 제33회기 뉴저지교협 회장 • 이사장 이취임식

제 33회기 뉴저지교협 시무예배 및 회장•이사장 이취임식이 지난 11월 14일 저녁 6시 30분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에서 열렸다. 뉴저지교협 33회기 표어는 "복음을 사는 교협"이다.

회장 장동신 목사는 취임사에서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 후 가족과 시무교회에 감사하며 임원들을 소개하고 "33회기를 예측 가능한 교협, 안정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첫째, 청소년호산나대회 유지 둘째, 이사회 활성화 셋째, 기존사역 유지"로 큰 그림을 소개했다.

장 목사는 "청소년 사역의 일환으로 12월 7일(토) Youth Connect NJ 2019(대상 중학생 부모 자녀 각각 1인씩 25가정)를 아버지학교와 함께 진행한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식사와 친교에 이어 예배는 부회장 최춘호 목사(주님의은혜교회) 인도로 기도 배광수 장로(부회장, 뉴저지연합교회), 성경봉독 서정학 목사(기록서기, 하희커뮤니티교회), 찬양 뉴욕웨체스터목사합창단, 설교 이병준 목사(28회기 회장, 한길교회), 헌금기도 김근출 장로, 헌금송 뉴저지장로성가단, 축도 정성만 목사(6기 회장, 그레이스벧엘교회) 순서로 진행했다.

이병준 목사는 "이 도에 복종하라"(행6: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새 회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사업을 잘 해서 교계나 동포사회에 보여줌으로 이 도에 복종하기 바란다"며 "첫째 행사위주가 아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 둘째 교협산하 교회들이 하나되어 기도, 물질, 인원 등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보여줄 것, 셋째 33회기는 힘들어도 끝까지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권면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재정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3부 시무식은 총무 육민호 목사(주소원교회) 사회로 교협기 전달, 이취임 기도 박효성 목사, 취임사 장동신 목사, 임원소개 및 위촉, 이사장 취임사 노상석 장로(이사장, 뉴저지연합교회), 축사 양민석 뉴욕교협 회장, 유병우 뉴저지목사회장, 윤석래 뉴저지장로연합회장, 박순탁 예성 미주총회장, 공로패 증정, 광고 김대호 목사(서기), 폐회기도 이의철 목사(29회기 회장, 은혜제일교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미주기독교방송국 30주년 후원 • 감사의 밤 예배를 마치고 참석목회자들과 직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내년부터 AM740, FM100.7 추가송출

## 미주기독교방송국 30주년 후원 • 감사의 밤

미주기독교방송국(KCBN, 사장 윤세웅 목사) 30주년 후원•감사의 밤이 11월 18일 저녁 6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사장/이사장인 윤세웅 목사는 "내년부터 공중파 AM 740, FM 100.7이 추가 송출된다"며 "예수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복음과 찬양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CBN은 1990년 8월 첫 정규방송을 시작으로 수신기(104.3FM, WAXQ SCA), 디지털 TV WMBC 채널 63.9, 스마트폰 앱(KCBN), 인터넷(www.kcbn.us), Audio Now(Call-to0listen): 1-605-781-4383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

이날 허연행 목사는 "복음의 광채"(고후4: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독교는 '귀'의 종교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듣는 데서 온다"며 "복음의 광채를 쪼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는가" 물으며 "예수님도 30년 사역을 준비하셨듯이 30주년을 맞은 KCBN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분기점을 맞았다. 2세, 3세대까지 복음의 광채를 비추라"고 말했다.

1부 감사예배는 박상일 목사 인도로 김도완 목사 개회기도, 특송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허연행 목사, 헌금기도 박마이클 목사, 헌금특송 이애실 소프라노에 이어 양민석 뉴욕교협회장, 장동신 뉴저지교협회장, 김경화 뉴욕한인회수석부회장이 축사하고 WMBC TV회장 주선영 목사에게 감사패 증정했으며, 윤세웅 사장이 송출감사인사/방송사역과 직원소개를 했다.

방지각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한문수 목사 애찬기도 후 만찬시간을 가졌다.

2부는 조순재 오영아 부장 사회로 월드밀알선교합창단이 찬양축제를 열었으며 윤세웅 목사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 남가주교회음악협 제38회 남가주찬양합창제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 주최 제 38회 남가주찬양합창제가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17일 오후 6시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라는 주제로 열렸다.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주최 제38회 남가주찬양합창제에서 참석자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전현미 회장은 “남가주교회음악협회의 올해 마지막 사역인 남가주찬양합창제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의 자녀로써 서로 격려와 축복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현미 회장 인사말과 백경환 목사(실비치 한인합창단 지휘) 기도로 시작된 합창제는 라훔여성합창단(단장 최수미, 지휘 강민석), RK 빅밴드(지휘 랜디김), 레위남성합창단(이사장 박태영, 지휘 이경원), 월드프레이어 여성코랄(단장 유화진, 지휘 전현미), 오렌지카운티 한인매스터코랄(단장 장경빈, 지휘 강미영),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여성찬양대(지휘 이은파), 남가주사랑의교회찬양대(지휘 조상환 목사), 오렌지미션콰이어(단장 노상철 목사, 지휘 장진영), 감사한인교회 임마누엘성가대(지휘 강민석),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찬양대(지휘 이은파) 등 10개 합창단이 참가해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찬양제는 참석자들이 헨델의 메시야 중 ‘할렐루야’를 함께 부른 뒤 김종규 목사 축복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KWMO주최 시리아 난민 프로젝트(가칭) 발족준비모임에서 김정한 선교사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3월 10대 컨테이너 제작 목표 모금운동

## KWMO 시리아난민 프로젝트(가칭) 발족준비모임

세계선교기회운동(KWMO, 대표 김정한 선교사)는 시리아 난민 프로젝트(가칭) 발족모임을 16일 오전 11시 선미니스트리에서 열었다.

김정한 선교사 사회로 열린 프로젝트 발족모임은 시리아 난민촌에 사랑의 솔라냉장 컨테이너 창고 보내주기 운동을 위해 열렸다.

김정한 선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인가라는 개념으로 시리아 난민을 이웃개념으로 다가갔다”라며 “시리아전쟁의 역사는 오래됐다. 현재상황은 비참한 상황이다. 모든 도시가 황폐화됐다. 현재 200여만 명 남았다. 탈출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요르단 난민촌에 300대 컨테이너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리아 난민들은 내전이 종료될 때까지 난민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난민들은 요르단, 터키, 파키스탄, 레바논 등에 모여 있다. KWMO측은 요르단에 모여 있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솔라냉장 컨테이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나가게 된다.

김정한 선교사는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정작 한국교회는 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며 “미주한인교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라 말했다. 현재 난민촌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케이스도 있다. 반면 난민들로 인해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무슬림화 되기도 한다.

KWMO는 신선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솔라냉장 컨테이너가 제 때 보내질 수 있도록 이날 발족모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효과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주한인교회들이 참여를 바라고 있다. 오는 1월부터 3월까지 컨테이너 10대 제작 목표로 1000구좌(1구좌당 300달러) 모금운동을 실시하게 된다.

김정한 선교사는 “선교를 하는 데는 교회 크기는 의미가 없으며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시리아 난민을 돕는 일에 특별히 중소형교회들의 참여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714)350-6957

〈박준호 기자〉

베다니교회에서 열린 몽족선교세미나에서 박담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 월남전 난민으로 미국에 20여만명 거주

## 베다니교회 몽족선교세미나, 강사 박담 교수

베다니교회(담임 송진엽 목사)는 몽족선교세미나를 17일 오후 2시 박담 교수(콩코디아대학교)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박담 교수는 “몽족(묘족)은 러시아 쪽에서 생성된 종족으로 처음엔 노란머리 초록눈이었는데 베트남까지 밀려오면서 외모가 아시안이 됐다고 추측된다”며 “몽족들의 결혼제도는 일부다처제이며 부인을 6명을 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결혼제도에 있어서 같은 성씨를 사용하는 자들끼리의 결혼은 금지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권의 타국가인일지라도 성씨가 같으면 결혼이 불허되고 만약 결혼하게 되면 천하게 여김을 당하게 된다. 다만 상대방이 서양인일 경우는 같은 성씨라도 결혼이 허용된다. 그러나 사촌지간에 성씨가 다를 경우 결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몽족의 의복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토속종교와 신앙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설명하며 “그들의 종교는 조상신을 섬기며 무당이 예식을 담당한다. 다만 병에 걸렸을 때, 섬기던 신에게 기도했을 때, 병고침이 되지 않았을 경우 믿음을 버리게 되며, 목회자의 기도로 병고침을 받았을 경우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한다. 특이한 점은 무당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루터교는 이민자와 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며 “베트남전쟁 이후 난민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루터교회에서 했으며 난민들이 미국으로 올 때 몽족들도 함께 와서 정착하게 됐다. 미국내 몽족의 인구밀집도는 캘리포니아 91,224명, 미네소타 66,181명, 위스콘신 49,240명이며 그 외에 알칸소, 켄사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굿네이버스USA주최 김미경 드림토크콘서트에서 김미경 씨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우측원은 콘서트가 마친후 열린 사인회 모습

# ‘꿈과 함께 의미있게 사는 법’ 주제

## 굿네이버스USA 김미경 드림 토크콘서트

굿네이버스 USA(대표 이일하)가 주최한 김미경 드림 토크콘서트가 15일 얼바인온누리교회(담임 박신웅 목사)와 16일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꿈과 함께 의미있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16일 오후 7시 30분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김미경 씨는 “한국인들은 자기애가 많고 내 가족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다”며 “2-30대 시절은 집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돈도 못 벌며 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40대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고 50대에 접어들면 두 번째 청춘을 맞게 된다. 60에 가까워지면 20대와 삶의 형태가 비슷해진다. 20대 하고 싶던 것을 소환한다”고 말했다.

그는 “50이후는 꿈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성장한 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꿈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다. 방향을 잃으면 우울증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나를 찾아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다. 나를 찾는 것은 삶의 방향이 생기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자존감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상국 목사가 계시록 강의를 하고있다

# 남상국 목사 ‘새하늘과 새땅’ 계시록 특강

남상국 목사 요한계시록 특강이 14일 오전 11시 마음이가 난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한미동맹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오진형 목사(WMBC Inc CEO) 사회로 열린 특강예배는 곽건섭 목사(예인장로교회 담임)가 기도했으며 김바울 목사(나성베들레헴교회 담임)가 성경봉독하고 진복일 교수(오페라 아카데미 원장)가 특송했다.

이어 남상국 목사가 ‘새하늘과 새땅’(계22:8)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은) 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인 것“이라며 “지난 2000여 년 동안 거짓선지자들이 마치 자신들에게 계시한 것이라 말한 것은 계시록에 대해 사기를 친 것”이라 지적했다.

이날 예배는 양승걸 목사(합동 해외총회 증경 총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west

### 월드미션대 제 26회 학생음악축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제 26회 학생음악축제를 오는 24일(주일) 오후 7시 한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 4050 W. Pico Blv.)에서 개최한다. ‘이태리 오페라의 황금기(The Golden Century of Italian Opera)‘라는 주제로 19세기 가장 대표적 6명의 오페라 작곡가(G. Rossini, V. Bellini, G. Donizetti, G. Verdi, P. Mascagni, and G. Puccini)의 대중적인 서곡과, 아리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음악축제는 본교 지휘 전공하는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 중 7명이 35명의 챔버오케스트라를 이끌게 된다.

▲문의: (213)388-1000

### 그레이스미션대 추수감사 오픈하우스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11월 25일(월) 오후 7시 LA 확장강의실(3020 Wilshire Blvd. T:213-529-4147)과 26일(화) 오후 7시 플러튼 본교 미라클 채플실(1645 W. Valencia Dr.)에서 추수감사 오픈하우스를 연다. 터키 디너와 함께 추첨, 게임과 학교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을 안내하며 참석자에게 입학금 면제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714)525-0088’

### 소망소사이어티 실버들과 자녀들과의 대화법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3대가 소통하는 기적의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실버들과 자녀들과의 대화법 세미나를 22일(금)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라팔마 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에서 갖는다. 강사는 성품교육 전문가 이영숙 박사.

▲문의: (714)226-0300

###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나성제일교회 차성구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12월 8일(주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문의: (213)388 - 7101

### LA복음연합감리교회 열방을 품는 선교음악회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김호용 목사) 열방을 품는 선교음악회가 12월 8일(주일) 오후 7시에 열린다.

▲문의: (323)641-0691

### LA동부교협 성탄찬양제

LA동부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성탄찬양제가 12월 8일(주일) 오후 5시 나성한미교회(담임 신용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626)444-0058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예방 전문가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수강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가정폭력 예방전문가 21명 배출

## 한인가정상담소 40시간 전문가교육과정 마쳐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가 풀러코리안센터와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동안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을 풀러코리안센터(디렉터 김창환 박사)에서 진행했다.

이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10일 동안 이어진 40시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카니정조 소장은 “한인사회 특히 한인 기독교계에서 공론화하기 어려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강 기회를 제공해주신 풀러코리안센터에 감사하다”며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예방을 위해서는 한인교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양하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한인교계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건강한 한인가정, 그리고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수강생 전원에게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수여했다.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그동안 간과했던 가정폭력은 물론 전반적인 폭력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며, 이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문의: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안 드디어 발의

## 안상수의원 등 40명 발의, '성별' 구체적 정의도 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性的志向)'을 삭제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드디어 발의됐다.

안상수 의원 등 40명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성적지향 조문 삭제와 성별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대신 '학력'을 첨가했다. 또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어 동성 간 성행위를 법률로 보호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가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국가인권위법 때문에 동성 성행위를 법률로 적극 보호해줘야 했고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면서 "반면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건전하게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오히려 차별로 간주돼 엄격히 금지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도 "성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법 개정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넘어가 공포된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

# 종교계 '생명 존중' 협력 결실

## 6대 종단 민관협 출범 18개월만 자살예방 지침서 출간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종교계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목소리로 외쳤다.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 모인 6대 종단(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대표와 관계자들의 손에는 '종교계 자살예방 지침서'가 들려 있었다. 지난해 5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종교계 전체에 자살예방 매뉴얼을 보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14일 열린 '종교계 자살예방 지침서 출간기념회'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소속 6대 종단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민관협의회 대표 등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종단별 각 1권으로 출간된 지침서는 자살예방에 대한 기본 이해, 자살 위기자와 유가족을 돕는 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 종단별 자살예방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생명존중에 대한 각 종단의 교리적 특성이 반영됐으며 기독교편에서는 '생명존중 의식 함양 설교 예시문'이 수록돼 목회자들이 설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상에서 자살의 경고 신호를 확인하는 법, 자살 위험 정도에 따른 대처, 자살 위기자의 주변인으로서 피해야 할 행동 등 실질적인 대응방법을 쉽게 풀어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유명인의 자살과 그에 따른 모방 자살, 자살유가족의 재사회화와 회복 등에 대한 조언도 포함됐다. 자살 사고 이후 위기관리, 장례절차, 애도 과정 지원 등 종교시설 책임자로서의 역할도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하상훈 민관협의회 운영지원단장은 "정부의 노력과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생명존중을 기본 사상으로 하는 종교계가 협력할 때 비로소 자살예방 활동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목회자를 비롯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종교 지도자들이 자살위험에 처한 분들을 발견하고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진다면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민관협의회 운영지원단은 종단별로 지침서를 보급하고 향후 지침서 내용을 강의안, 영상 콘텐츠 등 교육 자료로 제작해 자살예방 활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지침서가 필요한 기관이나 교회는 운영지원단에 요청해 배송 받을 수 있다.

# 은퇴 원로목회자들 '모세전도단' 발족

## "전도는 은퇴가 없다"…추진위원장에 김조 목사

은퇴 원로목회자 '모세전도단' 발기 모임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쇼핑4동 2층에서 열렸다.

모세전도단 발기인들은 매달 1회 정기모임과 전도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각 교단과 각 도에 위원회와 지부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한다.

내년 초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추진위원장은 김조 서울 삼락교회 원로 목사다.

김 목사는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서울신학교 학장 등을 지냈다.

김 목사는 "전도는 은퇴가 없다. 젊은 시절 전도 열정을 다시 회복해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했다.

나겸일 주안장로교회 원로목사는 설교에서 "먼저 믿은 이들이 할 일은 전도"라며 "전도는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1982년 설립한 초교파 선교단체인 세계터미널선교회가 주최했다.

세계터미널선교회 조창례 사무총장은 취지와 경과보고에서 "교파를 초월해 원로목회자들이 멋진 공동체를 만든다면 그 자체 만으로도 교회사에 위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대법 '전명구 목사 직무정지' 확정

## 기감, 감독회장 예비선거전 조짐…복귀 불가능 예측

대법원이 지난해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전 목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원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8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 목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거무효·당선무효 본안 소송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감독회장으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전 목사의 복귀가 불확실해지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기감은 정치적 갈등을 피하면서도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교단을 연착륙시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감에선 윤보환 목사가 전명구 목사를 대신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전 목사의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인 만큼 윤 직무대행은 이때까지는 기감을 비상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큰 변수가 없는 한 감독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내년 10월 진행된다.

그러나 기감 내에선 벌써 감독회장 후보군이 거론되며 예비선거전이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전 목사의 감독회장 재출마설까지 나온다. 전 목사는 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될 경우 재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선거무효의 책임이 당시 선거를 관리했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만의 책임으로 판결 날 경우 전 목사의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금권선거가 판결문에 적시되면 전 목사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기감 개혁그룹인 '새물결' 동부연회 총무 홍성호 대관대교회 목사는 13일 "기감이 사회법의 재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면서 "공언했던 것과 달리 전 목사가 본인 관련 재판들을 대법원까지 가져가면서 교단 구성원들이 자존감을 잃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중단하고 현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뒤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 다음세대 양육, 부모는 교사·교회는 멘토로

## '유바디 교육목회 모델' 대안 부상

교회와 가정을 연결한 신앙교육이 다음세대 양육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교회학교에만 신앙교육을 위임해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가들이 교회와 가정을 연결한 건 '168:1 법칙'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에서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이 된다. 일주일에 고작 한 시간 동안 교회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한다고 다음세대 양육이 되지 않는다는 걸 꼬집는 표현이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는 지난 2월 제1회 유바디 콘퍼런스를 열고 '유바디 교육목회 모델'을 제안했다. '유바디'는 신앙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멘토였던 바울이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한 데서 착안한 조어다. 어머니(가정)와 멘토(교회)가 다음세대를 함께 길러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박상진 소장은 13일 "장년 중심의 교구로는 교회가 역동성을 갖기에 한계가 있고 다음세대 양육은 더 힘들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음세대가 위기인데 일주일에 단 한 시간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사로 양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교구를 첫째 자녀의 나이에 맞춰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교육목회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유바디 교육목회 모델을 도입하면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1교구 여름 행사'로 바뀌게 된다. 기존 성경학교에는 교사와 학생들만 참석했다면 교구 여름 행사에는 교사와 학생, 부모까지 전 교인이 참석하게 된다.

지역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자녀 나이에 따른 교구 편성을 한 예도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교회(강윤호 목사)는 2017년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교구를 재편했다. 기독교교육 전문 연구기관보다 앞선 결정이었다.

강윤호 목사는 "교회에 부임한 뒤 전 교인 가정 심방을 했는데 대부분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문제로 고민하는 걸 알게 됐다"면서 "기존 체제로는 자녀의 신앙교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회와 가정을 한데 엮는 새로운 교구를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교구를 재편한 뒤 교인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지역 중심의 교구를 자녀 나이에 따른 교구로 재편했다. 교구의 이름은 '정원'이다. 2-4세 교구는 씨앗정원이며 초등학생 교구는 새싹정원이다.

신형섭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자녀 신앙 양육의 책임은 결국 부모에게 있다는 자각이 교회현장과 기독교교육 연구소들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면서 "교회와 가정이 자녀의 신앙 양육을 위해 협력하면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복음·사람, 하나님·인간 연결기회"

## FMnC 'IT 미션 콘퍼런스' "성경과 코딩" 주제

"코딩 교육을 교회학교에 어떻게 활용했나요." "교회학교에서 성공한 얘기보다 코딩 개념부터 설명해 주세요."

16일 서울 마포구 마포교회에서 '성경과 코딩'을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 참석자들은 서로 다른 질문을 던졌다. 강사들은 당황했다. 이 강의는 14일부터 사흘간 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FMnC)가 마련한 IT(정보기술) 미션 콘퍼런스의 선택강의 중 하나였다.

FMnC는 교회와 기독교 리더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콘퍼런스를 준비했다. 전생명 FMnC 이사는 "4차 산업혁명은 복음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기회"라고 했다.

콘퍼런스 현장은 ICT(정보통신기술)를 교회와 선교단체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성경과 코딩' 강의도 마찬가지였다. 원래 이 강의는 코딩이 교회학교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했다.

IT기업에서 근무하며 주일엔 한양교회 초등부 교사로 봉사하는 김수언 집사는 "최근 코딩 교육에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의 관심도 뜨겁다"면서 "교회에서 초기 교육 대상을 4명으로 한정했는데 주보에 광고한 뒤 두 자릿수 아이들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소개했다. 일부 참가자가 김 집사에게 코딩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코딩으로 성경을 교육할 수 있는지 의문도 표했다. 김 집사는 아이들과 진행한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김 집사는 "코딩은 기계를 움직이는 일종의 명령글"이라며 코딩 개념을 설명한 뒤 "악기를 가져갈 수 없는 이슬람 국가에선 작곡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로 곡을 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에서 역할을 찾지 못하는 30-40대 남성 신자들에게도 코딩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집사는 "저는 가족 때문에 주일에만 교회에 가서 아무런 역할 없이 무의미하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선데이 신자'였다"고 고백한 뒤 "코딩 교육을 한 뒤 또래 아버지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고 전했다.

IT가 선교의 도구로 쓰이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나혜선 선교사는 캄보디아에서 IT 기업을 운영한다. 나 선교사는 이포넷 대표인 이수정 FMnC 이사를 통해 2017년부터 캄보디아에서 이포넷 DTP(문서편집)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선교사는 "캄보디아 젊은이들은 IT 선진국인 한국을 동경하지만, IT 기술을 배울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사는 꿈의 직장"이라고 했다.

성경 말씀을 물어보면 'AI 바이블'이 답을 주는 AI 챗봇도 발전하고 있다. 이 이사는 "고민 상황을 기입하면 챗봇이 대화하며 상담하는 수준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위변조 금지, 탈중앙화, 보안 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헌금과 기부에 접목하는 기술도 나왔다. 기부 플랫폼 '체리(Cherry)'는 이미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 내장지방

## 아시안인 대사 증후군 위험 높아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고혈압등 대사 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백인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하와이에 사는 일본인들이나 미국 내의 필리핀계, 한국계 인도계 이민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높은 열량이 필요했을 것이고, 흰쌀은 배고프지 않고 고된 하루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인 음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바뀌고 미국과 같이 자동차 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 여전히 과거와 같은 식단을 고수한다면 건강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최근에 발표되는 많은 연구들을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은 이유는 복부비만 때문이고 지방축적의 분포가 백인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동양인의 복부 지방은 백인들의 그것에 비해서 당뇨나 고지혈증 등 성인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많이 분비한다는 것이다.

복부에 축적된 비만조직은 크게 피하지방 조직과 내장지방 조직으로 나뉜다. 피하지방이란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뱃살이지만 내장 지방은 복강 내의 장간막 등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만질 수 없고 CT나 MRI와 같은 특수촬영을 통해서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복부에 내장 지방이 과다 축적되면 혈당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물질을 분비(총칭해서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고 부름)해서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만질 수 있는 피하지방의 과다한 축적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종별로 보면 한국인과 같은 아시아인들은 선천적으로 내장지방의 배율이 백인이나 흑인보다 높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은 선천적으로 내장지방이 많아서 당뇨나 고혈압 등의 성인병 노출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에 이민 온 아시안 계에서 왜 당뇨병이나 성인병의 빈도가 급증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당뇨병이나 만성 성인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흰쌀 위주의 식습관에서 탈피하고 운동을 통해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탈북민 2명 강제북송 진상조사하라

## 선민네트워크 성명…관련자 처벌,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40-50대 목회자 모임인 선민네트워크는 11일 '탈북민 2명 강제북송 살인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 세워 재판을 통해 그 죄를 가리는 것이 옳은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국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추방한 후에 이를 통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직권 남용이며 국민 기만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강제북송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선교의 창 (135)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추수감사절에 부쳐(Thanksgiving Day)!

11월은 흔히 감사의 달이라고 부른다. 왜 일까? 비단 청교도들의 행적 때문만은 아니다. 그간 인류는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 근 1만년을 농경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왔다. 북반구의 사철이 있는 지역에서는 11월이 가을의 끝이요 겨울의 시작이다. 이때는 농촌에서 모든 곡식과 과일을 추수한 후이기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 농부들은 햇곡식을 먹으며 일년 농사를 돌아보게 된다. 20세기 이후 인류는 급격히 도시사회로 변모해왔다. 비록 농경문화는 위축되었다 할지라도 인간 삶의 자리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낙엽이 지는 11월에 추수감사절은 지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계절의 여울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악보에서의 쉼표처럼 바쁜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다.

### 추수 감사절의 유래

이 절기는 영국 제임스(James)왕과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했던 청교도(The Puritan)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1620년에 102명이 180톤짜리 작은 배인 메이플라워(May Flower)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다. 그들은 사선을 넘은 지 63일 만인 12월11일 미국의 북동부 플리머스(Plymouth)항에 상륙하였다. 그곳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신앙의 열심대로 가정보다 먼저 회중교회를 세움으로써 생명을 건 소원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것은 황금이나 여타 재물이 아닌 신앙의 자유이다.

오늘의 미국은 바로 이 청교도 신앙의 뿌리 위에서 세워진 것이다. 당시 불모지에 도착한 그들은 혹한, 굶주림, 풍토병, 맹수의 공격 등으로 많은 이가 죽고 49명만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개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씨를 뿌려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다. 청교도들은 추수한 햇곡식과 채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거워하였다. 인디언들은 칠면조를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유래로 이것들은 추수감사절의 대표적 요리가 된 것이다.

### 감사절의 선포문

청교도들은 정든 고향과 본토 아비 집을 버리고 사선을 넘어 이국땅에 정착을 했다. 그 첫 해씨를 뿌리고 얻은 수확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어떠했을까? 극한 고통과 죽음의 고비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과 우러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순례자들이 정착한 지 3년째 주지사격인 브레드포드의 감사절 선포문이 새롭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옥수수와 밀과 강낭콩과 과일과 채소를 풍성히 내려주셨고, 또한 사냥감이 풍성한 날고기와 조개가 있는 바다를 주셨도다. 또한 우리를 이민족의 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셨고, 흑사병과 각종 질병에서도 목숨을 지켜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주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들의 행정관인 나는 1623년 곧 그대들의 순례자 일행이 터전에 상륙한지 제3년의 11월 29일 목요일에 거기서 그대들의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축복을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선포하노라."

### 감사가 없는 현대인

청교도들이 미주 땅에 온지 399년이 흘렀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생활환경과 비교해보면 천지차이가 난다. 인류역사상 이렇게 풍요롭고 쾌적한 때가 있었던가? 21세기 현대인들은 놀라우리만큼 문명의 이기를 향유하며 자기 안락을 위하여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별로 없다. 예배당을 그렇게 많이 들락거리면서도 얼굴이 굳어있고 가슴은 메말라 있다. 동네 어귀를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Dog)라도 썩은 감자를 사흘만 주면 사람을 알아보고 꼬리를 친다. 헌데 사람 중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불만조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본시 인간이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감사를 잊기 쉽다. 세속에 취하다보면 감사는 커녕 신앙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왜 감사가 없는가?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 감사해야 할 이유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불러 주셨다. 죄와 허물로 도저히 자격 없는 자들을 십자가의 피 값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 이보다 더 큰 감사제목이 있을까?

둘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심 때문이다. 인류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있는 다툼과 전쟁으로 점철되어왔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이 가득 찬 세상에서 낙심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

셋째는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해주심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3:9). 바울은 고린도라는 밭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아볼로는 그 밭에 물을 주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특권, 이 영광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는가?

### 맺음 말

이 감사의 계절에 각자 의식을 과거로 환원해 초기 미주 땅을 밟은 청교도들의 믿음과 실상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평탄한 중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타고 온 배는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다. 그런 배로 대서양을 횡단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그 배의 항해 속도는 시속 2마일 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우리 사람이 보통으로 걷는 속도가 시속 3마일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사람의 도보 속도보다도 느린 것이다. 이런 극한 환경 가운데도 그들은 감사하며 117일 간이나 항진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어려울 때 감사하지 않으면 더 나은 환경이 주어져도 감사하기 어렵다. 감사가 없는 생활은 불행하다. 삶이 무미건조하다.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도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 감사가 없는 구도자의 삶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마틴 루터가 일컫기를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했다. 감사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아첨이 아니다. 이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신앙고백이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은 일상에서 감사가 성품화 되도록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의 승리란 결코 자기 목적달성이나 정복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 그 자체이다. 뜻 깊은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역시 금년 한 해 동안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세세히 열거해 보자. 나아가 하나님과 가족 및 이웃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 난 감사를 표현해보자.

jrsong007@hanmail.net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이다.**

**인간은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

**감사(Thanksgiving)는 말로Thanks 한 후에 뭔가를 Giving하는 것이다.**

##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심사평

백승철 목사
(시인, 문학평론가, 에피포도예술인협회 대표)

# "수상하지 못한 모든 분들과 수상작가에게 가슴으로 축하하며"

회를 거듭할수록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독후감 작품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후감을 여러 나라에서 응모하는 계층도 역시 넓어지고 있다.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번 제 5회 독후감 공모에도 최종심사에 오른 작품은 총 25편이었다. 이번 회 추천도서는 '포기하지 마(카일 아이들먼, 규장)' '나를 돌보는 시간(김유비, 규장)' '내게 힘을 주는 교회(한홍, 규장)' '행복연습(김형석, Denstory)' '하늘과 바다에서 건진 이야기(이보영, 대한기독교서회)'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독후감의 질이 높아 우열을 가르는데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그 기준에 의해 세 명의 우수상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해도 될 만큼 빈틈없는 작품들이었지만 목적지에 단 한걸음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크다. 그만큼 독후감 공모 심사를 꼼꼼히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첫 번째, 우수상은 이다복(버지니아, 휄로십교회)이 읽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다복의 독후감은 문학적 문필력도 뛰어날 뿐 아니라 독후감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자신의 경험과 적용에 있어서 선명한 작품이다. 문학적 작가로 도전해 보는 것을 권면하고 싶을 정도로 자질이 충분하다. 신선한 도입부, 책 내용을 집약하는 능력, 그 내용 중 자신과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적용, 결론에 이르기 까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작은 흠이 있다면 전체적인 균형에 균열이다.

두 번째, 김화성(영국, 에이처치)이 읽은 책도 '나를 돌보는 시간'이었다. 김화성의 독후감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도입부뿐만 아니라 독후감을 전개해 나가는 문학적 필력이 일반작가 수준이다. 하지만 한 문장이 자그마치 여섯 줄에서 끝나는 것도 있었다. 거의 모든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고 길어 전달하고자하는 핵심적인 목적이 희미해졌다. 그것은 적용에 있어서도 흔들리는 현상을 가져왔다. 아쉽게도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유이다.

세 번째, 우수상은 김장혁(LA, 엘로힘교회)이 읽은 '내게 힘을 주는 교회'였다. 김장혁은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목회자이기도 하다. 마지막 말미에 김장혁이 적은 것처럼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 다시 꺼내고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책이 될 것 같다"는 것은 책을 읽고 느낀 정서를 지금의 나와 연결해서 삶을 반추하는 독후감의 미학이다. 도입부에서 언급된 자신이 처한 현실의 상황, 저자소개,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적용의 실례, 저자와의 감정이입, 결론에 이르기 까지 매끄러운 작품이다. 하지만 책 내용의 전체를 아우르는 시선이 약해 보인다. 우수상으로 민다.

장려상에는 세 명의 독후감이 선정되었다. 한연선(산호세, 임마누엘교회)이 읽은 '포기하지 마'는 독후감의 처음 출발이 현실세계와 조화를 이룬 것이 참신해 보였다. 하지만 적용에 있어서 읽은 도서와의 연결고리가 약한 것이 아쉬웠다. 김재윤(캐나다, Neighbourhood Church)이 읽은 '포기하지 마'는 교훈적 글의 흔적이 묻어나는 것으로 인해 독후감의 특징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적용의 문제와 책의 내용전개는 대체적으로 짜임새가 있다. 정희수(치노힐, 인랜드교회)가 읽은 '나를 돌보는 시간'은 글의 전개가 중단되었다 다시 연결되는듯하여 불안해 보인다. 그래도 끝까지 책의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개입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리고 수상에서는 밀려난 손문식(플러톤, 은혜한인교회)이 읽은 '행복예습'은 전체적으로 무난했지만 책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진부해 보였다. 이은경(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이 읽은 '포기하지 마'는 독후감 제목을 '포기에서 용기로'로 정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글의 전개를 한 가지 주제로 연결해서 몰고 가는 힘은 있지만 내면에서 글이 분산되고 있다. 조금만 다듬으면 앞으로 역량 있는 글을 쓸 것으로 기대한다. 당선권에 들지 못한 것이 아쉬운 이유이다.

최종 심사를 정리하면서, 양질의 독후감 공모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역사에 공헌할 만한 기독교 작가를 다시 꿈꾼다. 수상하지 못한 모든 분들과 수상작가에게 가슴으로 축하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성공하기를 빈다.

# 뉴욕실버미션 도미니카 단기선교 마쳐

## 전영구 선교사 사역돕기 32명 참가, 건축헌금 즉석모금도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 2019년 하반기 선교사들이 도미니카 선교를 마치고 귀환했다.

전영구 선교사 사역을 돕기 위해 출발한 이번 선교팀(팀장 이형근 장로)은 수도인 산타 도밍고 선교관에 여장을 풀고 첫째 날 비토리아케르테교회(하토 누에노 목사), 둘째 날은 하이나교회(프란시스코 라미데스 목사), 셋째 날 진리장로교회(하포리나 목사), 넷째 날 사랑의 교회(미라그로 델 목사)에서 사역했다.

전영구 선교사(KAPC)는 도미니카에서 25년간 사역해오고 있으며 6개 교회를 개척해 원주민들에 이양하고 현재는 선교센터에서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10주간 교육과 훈련을 받은 32명의 선교사들은 10월 말에 종강을 하고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5박6일 동안 사역을 하였으며 의료, 한방, 안경, 사진, 이.미용, 어린이 사역 6분야로 훈련된 팀이 4일간 3,688명을 캐어하였으며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교회에 2,524달러를 즉석에서 헌금해 전달했다.

이번 선교는 공항 출입국에서부터 순탄하게 시작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중남미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어려움 없이 은혜 중에 진행됐다고 선교팀들은 밝혔으며, 뉴욕실버미션 제29기 선교사역을 은혜중에 마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오지에서 사역하는 전영구 선교사와 도미니카를 위하여 아낌없는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연락처: (917)963-9356 김경열 훈련원장

〈정리: 유원정 기자〉

〈10면에서 계속〉

그 대표적인 열매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학감으로 수고하는 허윤준 목사를 설교자로 소개했다.

허윤준 목사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삿5:1-13)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후회 없이 섬기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셨으니 힘 있게 찬양할 것"이라며 찬양의 이유에 대해 전하고 "동부개혁장신 학생들의 찬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울려 퍼지며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도 합창단은 윤원상 교수 지휘로 예배용 뮤지컬 '알렐루야'를 찬양했다[1755호 10면 참조]. 이날은 '주께 찬양드리세' 등 4곡을 부르고 '영원히 나 주만 위해 살리라'를 학우가 간증하고 솔로를 했으며 '주님의 십자가 나는 믿네'는 이혜연 학우가 간증하고 솔로로 찬양했다.

이어진 헌금을 위해 기도한 학장 김성국 목사는 "한 신학생이 바로 서면 한 교회가 바로 서고, 한 교회가 바로 서면 한 도시가 바로 서고, 한 도시가 바로 서면 한 국가가 달라지고, 그러면 전 세계가 달라진다"며 신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 감사절 축하 광고

# Happy Thanksgiving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 찌어다 (시 105:1)**

###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욱
12-25 Clintonville St.
Whith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흥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전영자 목사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Tel.(213)559-7728(전화 팩스 겸용)
Tel.(213)210-6890

###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융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e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풍윤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arnce CA
90502
Tel.(310)749-0577

###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 필라한인연합교회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 영어로 보는 성경 (44)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Luke 4:18,19

18)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release the oppressed, 19)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NIV 1984〉

▣ WORD & IDIOM

* anoint: 기름을 붓다 * preach: 설교하다, 전하다 * the poor: 가난한 사람들(the poor people) * proclaim: 공포(선포)하다 * freedom: 자유 * the prisoners: 갇힌 자들, 포로 된 자들 * recovery: 회복 * sight: 시력, 봄, 보기 * the blind: 눈먼 자들 * release: 풀어주다, 석방(해방)하다 * the oppressed: 압제 받는 자들 * favor: 은총, 은혜

▣ GRAMMAR

18)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주의 성령(이) 있다 내 위에
because he has anointed me
왜냐하면 (~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복음)을 전하도록 (하기위해)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에서 〈has anointed〉는 현재완료형 〈have(has) + pp〉으로 지금도 기름이 부어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 문장은 〈주어 + 동사 + 목적어 + 목적격 보어〉의 순서로 구성된 5형식의 문장으로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쓰였다. 이 문장에서 〈to+preach〉의 의미상 주어는 〈anointed〉의 목적어가 되는 〈me〉이다. 즉 주께서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anointed〉의 목적어인 〈me〉가 복음을 전하도록 기름을 부으셨다는 의미이다. 아래의 문장도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사용된 3개의 5형식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그가 나를 보냈다 자유를 선포하도록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갇힌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눈먼 자들을 위한 시력의 회복을 위하여
to release the oppressed,
압제받는 자들을 풀어주도록

19)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 그분께서 갇힌 자들과 눈먼 자들을 위한 시력 회복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도록, 압제받는 자들을 풀어 주도록,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위해) 나를 보내셨다.

* 위와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말로 해석할 경우 그분께서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길어서 〈그분이 ~ 보내셨다〉 즉 〈주어와 동사〉 사이도 너무 멀게 되어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꼭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순서대로 죽 읽어 내려가며 직해를 해도 내용파악에 어려움은 없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왜?) 내가 갇힌 자들과 눈먼 자들을 위한 시력 회복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도록, 압제받는 자들을 풀어주도록,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이 경우 〈to release〉와 〈to proclaim〉 앞에 〈He has sent me〉를 넣어 각각 독립된 문장으로도 해석해 보라.

▣ STUDY & THOUGH

■위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사 61:1, 2)을 인용한 것으로 메시야 사역의 본질을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그 예언이 자신의 사역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가르치신 것이다(눅 4:21). 여기서의 가난의 개념은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 곧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를 의미한다. 18절 끝 부분의 〈to release the oppressed - 압제 받는 자를 풀어 주도록〉이란 말은 앞에서 나열한 모든 말의 함축으로 볼 수 있는데 실로 예수께서는 모든 죄의 세력에 눌려 있던 자들을 자유하게 하심으로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다.

■ Jesus always worked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땅의 지혜를 경계하라(약3:15-16)찬383장

야고보는 두 종류의 지혜로 구분하면서 땅의 지혜가 무엇임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인간의 꾀입니다. 그것은 3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첫째, 시기로 나타납니다. 공동체생활에 자주 일어나는 질투와 시기는 세상처세술 중 하나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뼈를 썩게 하는 병처럼 우리생활에 모든 화평과 성결의 구조를 부수거나 녹여버립니다. 둘째, 다툼이 나옵니다. 서로 경쟁하다가 미움에서 생기는 다툼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입니다. 영전을 힘써야하지만 육적 다툼이 일어남은 벌써 마귀에게 넘어지고 있음을 의식해야합니다. 셋째, 혼란합니다. 육적지혜는 평안과 질서의 반대인 공허와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땅의 지혜를 잘 분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합니다.

## 화 위로 난 지혜(1)(약3:17)찬545장

세상지혜와 달리 위로 난 지혜는 성령의 역사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7가지 중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결입니다. 하늘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결이 모든 방면에 나타나도록 돼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 앞에서 행하려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화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곧, 의가 세워질 때 화평이 생깁니다. 화목이 없는 의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셋째, 관용입니다. 용납하고 책임지고 싸매주는 것, 곧 사랑이 모든 치료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십자가 지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성결과 화목을 구하는 마음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좋은 마음 곧, 덕을 세우려는 것이 관용에서 나옵니다.

## 수 위로 난 지혜(2)(약3:17)찬502장

그 다음에 위로 난 지혜는 사람 관계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넷째, 양순입니다. 그것은 온유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양순은 땅을 다스리며 다른 사람에게 참된 유익을 줍니다. 다섯째, 긍휼입니다. 사랑의 가진 중요한 요소가 긍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로 상처를 입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을 가리킵니다. 위기를 당한 새끼를 본 어미 새가 심장이 터지는 안타까움을 가리킵니다. 여섯째, 선한 열매로 충만합니다. 위로난 지혜인 성결은 충만한 선으로 나타나 거짓과 편벽이 없고 그 나라의 의를 강하게 세웁니다(18).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입니다. 세상 처세술을 따르기 좋아하는 이 시대에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그 나라를 세웁시다.

## 목 정욕을 경계하라(약4:1-3)찬197장

"육" "옛사람"으로 일컬리는 정욕은 악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과 같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다툼은 그 출처인 정욕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정욕을 따르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다툼과 살인과 시기를 가져옵니다. 둘째,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듭니다. 셋째, 거룩한 행위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정욕의 노예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 구하게 됩니다. 그 육을 따르면 멸망합니다. 신자의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되었기 때문에(롬6:6) 이제는 밀림을 헤쳐 가듯 바울처럼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 적용해야합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항상 싸워야 할 우리의 영전입니다.

## 금 세상을 살아갈 때(약4:4-6)찬91장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세상과 벗되지 않도록 힘써야합니다. 세상과의 친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속문화 속에 살지만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변혁시키는 목적으로 살아가야합니다. 둘째, 성령의 탄식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합니다. 이 세상의 교묘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 주께서 우리 속에 두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 그 탄식을 알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은혜를 겸손하게 사모해야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충만합시다.

## 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려면(약4:7-8) 찬421장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 복종을 힘써야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전적인 복종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를 대적하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합니다. 둘째, 마귀를 대적해야합니다. 자기의 땅을 잃은 사탄은 광명의 천사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합니다. 그 때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대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써야합니다. 마귀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노력으로 나가게 합니다. 에녹처럼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로 만사형통의 은혜를 누립시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el.(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INVITATION

# 퀸즈장로교회 임직 장로, 집사, 권사 감사예배

Elder Ordination & Deacon, Kwonsa Installation Service

**2019 년 12 월 8 일 (주일) 오후 5 시 퀸즈장로교회 본당**

**Dec 8. 2019 (Sun) 5PM KAPCQ Main Chapel**

##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퀸즈장로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로 집사 권사 임직 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셔서 함께 해 주시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May the grace and peace of God be with you always,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is hereby presenting the Elder Ordination and Deacon and Kwonsa Installation Service at our church.

## 장 로 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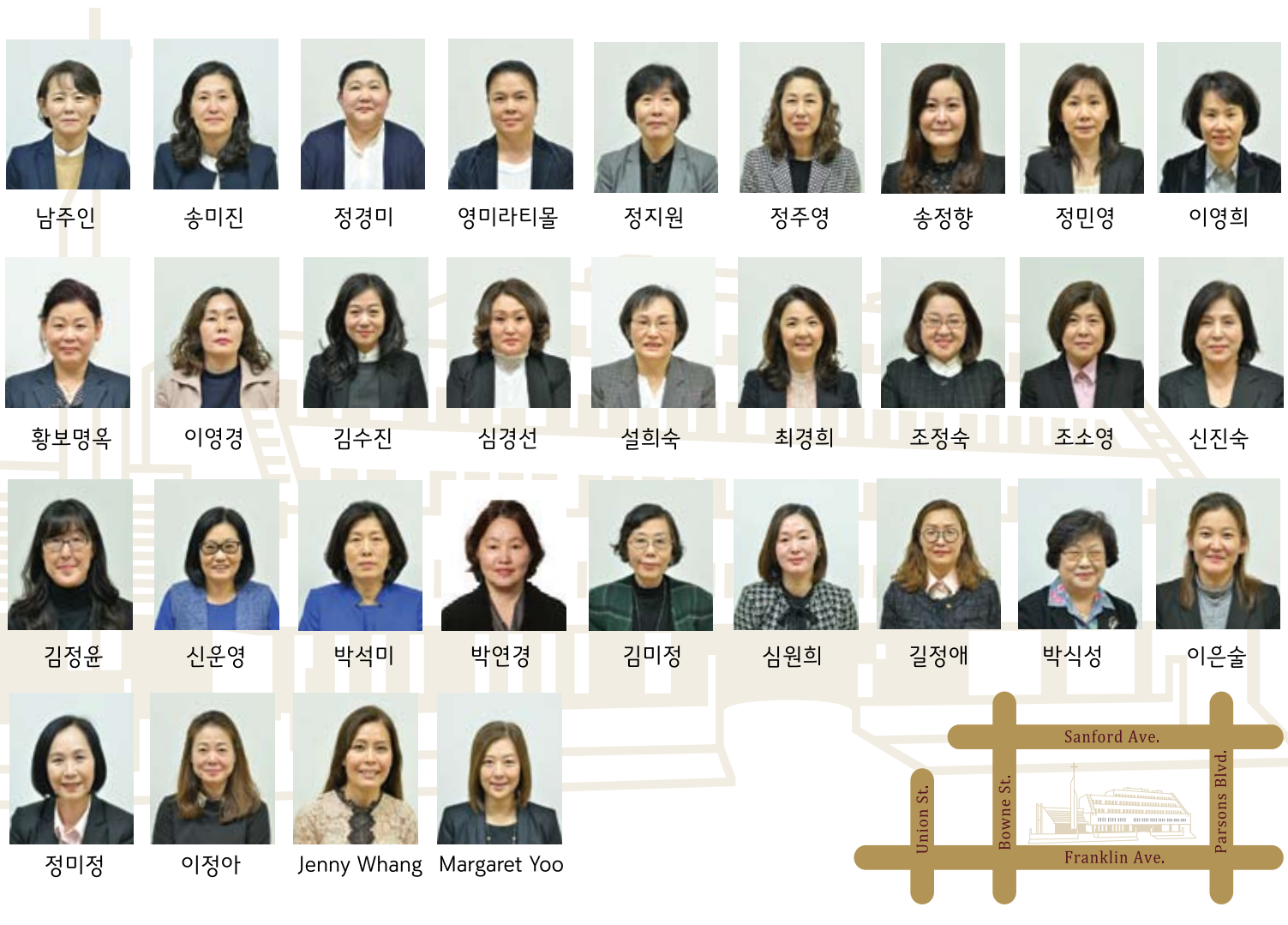
박정봉 홍성익 정기영 김지현 이정훈 David Shin Jay Youn

## 집 사 Deacon

최성수 송현규 정재윤 차윤일 박상용 임동진 이동훈 설동택 김형섭

임지홍 이정훈 민준성 민경원 황상우 박경수 정해성 Edmond Choi Marcelo Chan

## 권 사 Kwonsa



남주인 송미진 정경미 영미라티몰 정지원 정주영 송정향 정민영 이영희

황보명옥 이영경 김수진 심경선 설희숙 최경희 조정숙 조소영 신진숙

김정윤 신운영 박석미 박연경 김미정 심원희 길정애 박식성 이은술

정미정 이정아 Jenny Whang Margaret Yoo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040 Fax (718) 886-5555